朝鮮日報
夕刊
六日(月)
本紙朝夕刊十二面
編輯人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illegible]
發行所 株式會社朝鮮日報社 [illegible]
◆本社定期刊行物◆
雜誌『朝光』(一月一回發行)
同『女性』(上)
同『少年』(上)

遠山部隊를先鋒으로 開封城完全占領

鄭州東方〇〇까지進出

【歸德六日發同盟至急報】遠山部隊는 〇〇砲部隊의 協力下에 高五米의 城壁을 猛攻한後 開封東北角을占據, 城內 到處에서 抵抗을 試하는 敗敵에 勇猛 果敢한 掃蕩을 加하야 六日未明 省城開封을 完全占領하엿다 敵은一齊히 西方으로 潰走하고 我軍은 續續入城中이다

【北京六日發同盟至急報】六日午前九時十五分 軍司令部發表=遠山部隊는 昨五日朝來 開封에 依據한 敵을攻擊中이든바 激戰後 午後八時半頃 開封城東北角을 占領하엿다

【歸德六日發同盟至急報】開封縣城으로 進擊中이든 我遠山部隊는 五日午後八時十五分 同縣城의 一角을 占據하고 一齊히 城門으로 突入하야 東天에 노피 日章旗를 飜揚하고 繼續하야 同城內를 掃蕩中이다

【歸德六日發同盟至急報】開封의 敵軍은 我急襲에 唐惶하야 一齊히 鄭州方面으로 潰走하야 鄭州城은 月下 敗殘兵의 殺到로 大混亂을 呈하고잇다

【歸德六日發同盟至急報】河南省의 省都開封占領에 榮譽스러운 一着을한 遠山部隊와 서로呼應하야 各城門을 占據하고 繼續 同縣城內를 掃蕩中이든 各部隊는 鄭州方面으로 潰走中인 殘敵을 急追하며 雨雲에 엇게잠기고 煙霧가 낀 진흙길을 猛進하야 午前九時頃에는 開封 鄭州中間의 要地 東方十키로 地點에 進出하엿다

開封入城式六日中擧行

【石家莊六日發同盟至急報】東北角으로부터 開封城內에突入한 部隊에 繼續하야 我〇〇部隊는 六日午前九時 北門附近으로부터 突入, 다시 東方으로부터 攻擊해온 〇〇部隊는 사다리로 城壁에올러 城內에殺到하야 完全히 同地를 占領하엿다 入城式은 六日中에 擧行할것으로보인다

鄭州敵도續續潰走中

【石家莊六日發同盟】疾風迅雷的 進擊으로써 敵으로하여금 對應할틈이 업게한 我〇〇部隊는開封攻略後隴海線南側地區 〇〇에 向하야 西進하는〇〇, 〇〇兩部隊의猛攻에鄭州의敵은 六日朝來 動搖하기시작하야 西進部隊에게 退路를 遮斷될것을 두려워하는 나머지 續續 退却을 開始하엿다 中央軍將兵의 必死的防止도 效果업시西方 南方으로 潰走中이다

鄭州로의敗敵을 完全包圍殲滅

【石家莊六日發同盟】開封攻略部隊의 一部快速部隊는 그快速을 利用하야 멀리開封의 南方을迂廻하다가 다시轉身하야 開封으로부터의敵의 退路를遮斷하는同時에 主力部隊와 協力하야 이를完全히 包圍하고 鄭州로向하야 潰敗走하는 敵을거의袋中之鼠로만들어各處에서 이를擊破中이다

敵鄭州로續續退却

【〇〇五日發同盟】五日午後四時〇〇에 飛來한〇〇機의情報에依하면 〇〇部隊의 猛烈한 攻擊에依하야 開封城은 全혀 混亂化되야 敵의 主力은 車輛及列車로 續續西方鄭州方面에 退却을開始, 開封 鄭州間의 道路는 避難民으로 大混亂을呈하고잇다

【石家莊六日發同盟】〇〇部隊의 開封城突入에 城內의 敵은 狼狽하야 頑强히 抵抗는 一部의 殘兵도 이미 戰意를 喪失코 五日夜 續續대를지어 潰走中이다

隴海線東端確保로 皇軍作戰新階段에

【北京五日發同盟】徐州다음가는 隴海線東端의 要衝으로 蔣介石이 二十萬의 精銳를추러 防戰에努力하고잇는 開封의要衝은 我軍의 大膽無敵한 迂廻包圍作戰의 巧妙한 分進合擊에依하야 바야흐로 그運命이 朝夕에迫到되여이며 그陷落은 數時間을남긴뿐으로되바 開封附近의 堅陣에依據하야 二十萬의大軍을엇고 我黃河渡河部隊에 反擊하야온 敵將 胡宗南이 어가리도脆弱하게 開封放棄를 不得已하게 되려는 所以는 徐州會戰에서 疾風迅雷的으로 進擊한 我快速部隊에依하야 敵의退路가 切斷되여 隴海戰線을 넘은 我部隊의 進擊이 實現된것을알자 어느듯 敵은 動搖되여 全線에 總崩壞하게되엿던것이다 開封放棄는 隴海線東端의 河南省內의 重要地區를거의 放棄한것이나 마찬가지로 觀測된다 開封攻略에依하야 徐州會戰戰果에 一段階를劃한것으로 今次徐州會戰의 有終의 美를거두운것이다 이로써爾後 我軍의作戰行動은 全혀別個의 段階로 드러가게되엿다 어가리 三月十四日 津浦線滕縣界附近으로부터 進擊한 沿濟地帶의 敵掃蕩을爲하야 滕縣, 嶧縣, 台兒莊, 沂州, 邳州等 戰史에光輝를自誇하던 激戰을展開하고 마침내蔣介石이 國防線으로 그堅固를자랑하던 徐州를陷落한後 繼續하야 歸德, 寧陵各戰線의要點을 모두占據한 我各部隊의 功績은 實로絶大하다

을繼續하고잇던것으로 徐州大會戰에서 회엇시敗退하자 第一먼저徐州를脫出한것이엇대 食糧이欠乏되데다 身心疲勞가極에 達하야 戰場을彷徨하고잇던中 我捕虜가된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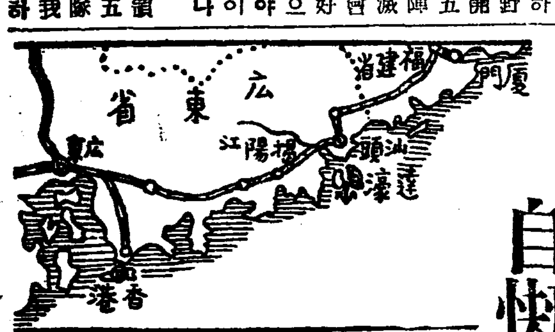
京漢沿線의敵 全面的潰亂切迫

【北京六日發同盟】開封을 放棄하고 맥업시도敗退한 敵敗殘部隊의 潰入으로因하야 鄭州는 大混亂을 呈하고잇다 蔣介石이 자랑거게 信賴하는 鄭開防衛總指揮 胡宗南은 必死的으로 頹勢를挽回코저 狂奔하고잇스나 到底히 決河와가튼 皇軍의 進擊을 阻止할수업슴을 깨닷고 어느듯 京漢線南端鄭城方面으로 後退하엿다고도하야 京漢線方面支那軍의 全面的潰亂은 마츰내切迫된模樣이다

開封城占領經過

【石家莊五日發同盟】黃河를渡河한 〇〇部隊의 進擊은 實로驚異的躍進을보여 敵으로하여금抵抗의餘有가업게하야 마츰내開封城을占領하게된것이다 即 黃河渡河部隊는 陳留口에서 暫時隱忍自重하고잇든바 한번行動을開始하자 회살가티 隴海線을沿하야西進하야 抵抗하면서 退去하는 敵을 擊破하면서 無人의野를가드시 四日夕陽에는 마칙네開封城三十里의 地點에到達한後五日早朝에 開封附近의 敵第一線陣地를突破하고 抵抗하는敵을擊滅하면서城壁을 向하야 突入할機會를엿보든바 午後八時二十五分好機到來로 城內에 突入 肉彈으로써城門을 占據하고 繼續하야 城內의 殘敵을掃蕩하야 黃昏이될지음 河南의 大平原에 빗나는 日章旗를 飜揚하엿다

【北京六日發同盟】我軍이 占領한 開封城의 敵은 中央軍第五十一, 第五十二兩師의 精銳部隊로 野砲, 迫擊砲等을 가지고 我軍에 對하야 必死의 抵抗을하고잇든바 我〇〇部隊는 五日夕薄暮를타서 開封北方 東方으로부터 이를 攻擊하야 我砲兵隊는 北門及東北角으로부터 集中砲火를 퍼부어 突擊路를 完成하고 各部隊는 砲兵掩護下에 前進, 城壁에 肉薄하야 마츰내同夜午後八時半遠山部隊는 東北角에 突入하야 이를 占領하고얼마後 繼續하야 橫山部隊의 一部가 東北角側에 사다리를 노코 城壁을 올라왓다 繼續하야 그遠山部隊의 主力은 東門北側을 占領, 井上部隊도 亦是 北門에 突入, 各部隊協力하야 戰果를 南側으로 擴大하고 城內의 殘敵을 掃蕩하던바 六日午前完全히 이를 淸掃하고 開封城을 完全히 占領한것이다



自惕한支那當局 汕頭港을閉鎖!

【香港五日發同盟】汕頭軍事當局은 同地의 我海軍에依하야 바든 脅威를痛感하고 潮州 汕頭警備司令李漢魂의 名義로써 五日汕頭港의 閉鎖를命하야 汕頭 德州島間의 水道를封鎖하고船舶의出入을 一律로 禁止하엿다

徐州附近서 敵從軍記者를捕虜

【徐州五日發同盟】戰略的要地에 配屬되여 熱心히逆宣傳의 記事를쓰고잇던 支那從軍記者가 捕虜가되엿다 去月二十日〇〇討伐隊가徐州東南方海龍集附近에서 敗殘兵을掃蕩하든中에 十名을捕虜로 하엿는대 其中에 [illegible] 白色詰襟服에脚絆을친 從軍記者가잇섯다 그는局滄浪(三十)이란者로 紡織專門學校卒業하고同時에 武漢日報記者로서 今次事變勃發以來臨沂, 臨城, 台兒莊, 徐州等 支那軍의各戰略的 要地에 配屬되여 內外에向하야 逆宣傳

大型장크八隻擊破

【上海五日發同盟】艦隊報道部五日午後四時發表 昨四日海南島北方海面에서 交通遮斷에 從事中인 帝國海軍艦艇은 砲及小銃으로써 武裝된 八隻의 大型장크가 抵抗해오므로 이를擊破하엿다

東條陸軍次官 門司經由福岡에

【門司電話同盟】關東軍參謀長으로서 在滿二年八個月國防第一線에잇서 偉功을세우고 今回陸軍次官에 榮轉된 東條英機中將은 家族同伴 六日朝門司入港의 日滿連絡船熱河丸으로歸國, 兒玉西部防衛司令官以下 官民多數의 出迎을바드면서上陸, 同八時五十分急行으로 二日市에向하엿다 七日朝福岡旅館旅客樓로 東上할터인바 同中將은 이가티말하엿다

滿洲國의躍進相에는 實로놀랏다 治安回復도 着着 進捗되고잇다 今次事變이 勃發하자 半信半疑하는者도잇섯스나 現在에는全혀沈靜되여잇다 國境方面에서 時時로 衝突事件이 생기고잇는모양이나 大局에는 影響이업다 이것도 皇軍이儼然히 背後에存在해잇는까닭이다

川村團長空路로來京

【東京電話同盟】貴族院皇軍慰問團長 川村竹太郎伯은 六日午前七時 羽田飛行場發 空路京城에 向하엿다 京城에 先着한 第一行과함께 渡滿할터이다

蘇聯支那通 아氏失脚?

蘇聯學士院會員으로 支那問題의世界的權威인 알렉세프氏는압서 我國에도遊學한 일이잇는바 最近 어즈베스차紙는 同氏의失脚豫告한가튼 非難的論文을發表하엿다 即同紙의 報道에依하면 알렉세프氏의對支知識은古代的 古典을 基礎로한것으로 現代支那를 理解하는能力이 거이업고 又最近刊行된 現代支那語辭典의 編纂에 當하여는 젊은支那問題研究家를 排除한때문에 同辭典은 極히不滿足한것이되엿다

抗日蔣政權潰滅과 國交調整에邁進

宇垣新外相의外交方針

【熱海電話同盟】內閣改造를 斷行한 更生內閣今後의 對支政策은 內外로부터 重大한關心을가지고 注目되여잇는바 宇垣新外相은 目下 愼重한態度로써 外交政策의 全面的確立의 準備를 進行하고 잇는데 新外相의 抱懷한 外交政策의 根本方針은大體 左와如할것으로 觀測된다

一、이미 徐州를 失하고 漢口를 放棄하야 完全한 一地方政權으로 失墜하게된 今日에 잇서서도 蔣政權은 그래도對日抗戰을 主張하는것은 오직 蘇聯 其他 第三國의 援助를 期待하는同時에 日本의 確乎不動한 對支根本方針을 寡少評價 하는때문이다 我方으로서는 어디까지던지 抗日蔣政權의 徹底的潰滅을 期하는同時에 列國에 對하야는 機會잇슬때마다 我對支政策의 眞意를 諒解케하도록 最善의努力을 傾注하야 諸外國으로하여금 對支政策遂行의 重大性을認識케하고 蘇聯邦等의對支援助의 無意義한 所以를體得할必要가잇다

一、第三國과의 國交調整에對하야는 我國의 對支政策遂行의 覺悟와 意義를 覺醒케할은勿論인바 今後로도 無益한摩擦을避하야 目下의 重大時局下의我國際地位를 有利케하도록 努力한다 그리고 獨伊防共兩國에對하야는 今後로도 그關係를더욱 緊密케하야 我國의 對支政策遂行을 有利케할것 對蘇問題에 對하야는 從來의諸懸案解決에 邁進할은 勿論이오可及的 根本的으로 國交調整에도 進出할豫定이다

一、外務省人事刷新에 對하야는 目下愼重히 研究하는中인바 大公使級의 人事에關하야는 널리 省內外의 人材를網羅하야 重大時局下의 外交政策遂行을 期하고잇다 (寫眞은 宇垣外相)

스탈린暗殺陰謀

스탈린 보로시로프에對한 暗殺計畫은 發覺되여엿섯는바 某所着電에依하면 最近 또 莫斯科及 레닌그라드에서 스탈린及보로시로프의 暗殺陰謀計畫이 發覺되여 一黨十數人은 모두逮捕되엿다 그리고 이 暗殺陰謀의 動機로 發表된것에依하면 支那의戰亂에 對하야 蘇聯이 積極的 武力援助를하지안는것은 스탈린政權의 墮落이라는데잇다 그眞僞는 判明되지안흐나 反蘇運動의 一面을 表現하는것으로 極히 興味잇는것이다

漢口防備策協議

蔣、軍事會議召集

【上海六日發同盟】漢口來電에依하면 開封漢口間의 無線電信電話連絡도 四日夜부터 杜絶되야 開封陷落도 最後의一瞬에 切迫된것을안 蔣介石은 五日夜前線에잇는 各司令官을 突然漢口에 召集하야 軍事會議를 開催하엿다 그目的은 隴海線防備陣地의 喪失로말미아마 急激히切迫된漢口의危機防備에對한 基本的戰略을協議하는데잇다고한다

粵漢廣九爆擊 鐵橋線路等을粉碎

【上海六日發同盟】艦隊報道部午前十一時發表

一、海軍大尉가 指揮한 南陽攻擊部隊는 惡天候를 征服하고 目的地 南陽飛行場에 達하야 地上에 待機中인 敵中型機七機를 爆擊하야 그中五機를爆破하엿다 그리고 飛行場滑走路諸施設에 對하야도 多大한損害를 주엇다

二、廣東市附近의 軍事施設을攻擊한 部隊는 省政府, 市政府를 爆擊하고 黃沙驛도 前日에 繼續하야 爆破한後 市外白雲飛行場所屬格納庫群及滑走路를爆擊하야 多數의 命中彈에依하야 이를爆破하엿다

三、粵漢鐵道方面을 攻擊한部隊는 黃村驛附近에잇는 軍用建築物群에 對하야 極히有効한爆擊을加하야 大部分을 爆破하엿다 西村驛附近發電所를 攻擊한部隊는 直擊彈으로써 이를 爆破하엿다

四、廣九鐵道를 攻擊한 部隊는 石龍驛附近의 鐵橋를 爆擊한뒤 橋脚에 數彈을 命中케하야 이를爆破한外線路六個所를 爆破하엿다

潁水河의掃蕩戰況

【上海六日發同盟】淮北地區에서 徐州作戰의 殘敵을 掃蕩하고淮河를건너 西南方으로 向하야行動을開始하야 潁水河線으로 進擊中이든我〇〇, 〇〇部隊等의南方部隊의 精銳는 四日鳳台를陷落하고 다시五日午前七時에는壽縣을陷落케한後 正陽關으로 怒濤와가티 猛進中이다 正陽關의 陷落도 目睫間에 迫到하여잇는 이方面에서 我猛擊으로 潰滅된 敵은王贊緒의 指揮하는 中央軍約三個師인바 西方으로 向하야 潰走中이다

駐日蘇聯大使 急遽히歸國

【東京電話同盟】駐日蘇聯大使스라우츠키氏는 五日午後十時東京驛發列車로 家族同伴 急遽歸國의途에就하엿다

確乎한國策樹立次 五相會議를續開

第一回는來九日頃!

【東京電話同盟】近衛首相은 徐州陷落을 一轉機로 新段階로 드러갈 對支長期戰에 對應하야 聖戰의 一體化를 目標하고 內閣의 補强工作을 斷行한바 外務 大藏 文部 各閣僚에 宇垣 池田 荒木 三巨頭를 새로加하고 繼續하야 陸相更迭에 依하야 陸軍部內의 興望을 一身에 진 板垣中將의 陸相就任을 보게되여 近衛內閣은 名實共히 戰時强力內閣의 態勢整備를 完了하게되엿다 따라서 政府는 마침내 對支問題를 中心으로 確乎不動한 國策樹立을向하야 邁進하기로된바 來九日頃을 期하야 近衛首相을 中心으로 外務, 大藏, 陸海軍의 第一回 關係閣僚會議를 開하고 最高方針을 討議하기로되엿다 그리고 그關係閣僚會議는 今後도 一週間에 一次식 開催할것으로보이는바 政府의 最高根本方針은 一切 右關係閣僚會議에서 討議될것으로 今後 政府의 動向은 關係閣僚會議를 中心으로 動하게되여 近衛首相의 獨裁를 一層强化하는것이라하야 注目된다

杞縣殲滅戰에 小銃彈二萬發鹵獲

【北京六日發同盟】去三日杞縣을占領한 我〇〇部隊는 杞縣附近에서 敵大部隊를 殲滅케한바이敵은 五十五、八十八、七十四、五十八、五十二의 各師에屬한部隊이엇다 判明되엿다 이戰鬪에서 小銃彈二萬發 其他多數의鹵獲品이잇섯다

時事解說

共黨員의國民黨復籍

國民黨 中央監察委員會는去三日 午前八時 重慶中央黨部會議室에 第十四次 常務會議를 開催하고 林森, 吳稚暉, 蔣中正等 各委員出席下에 열적이 共產主義者라는 理由로 國民黨에서 除名處分하엿든 左記廿六名에 對하야 黨籍回復決議를하엿다。

陳獨秀、周恩來、郭沫若、張國燾、陳其瑗、史[illegible]、鄧[illegible]、[illegible]、劉鴻緒、于樹德、[illegible]、[illegible]、林祖涵、[illegible]、朱德、[illegible]、毛澤東、[illegible]、[illegible]、彭[illegible]、[illegible]、[illegible]、[illegible]、林[illegible]、[illegible]外三名。

◇

西安事件以後 國共合作이 急테포로 具體化하엿슴은 周知하는바 事實이어니와 蔣介石은 昨年 여름에 人民戰線派領袖 沈鈞儒、章乃器、李公樸、王造時、史良、沙千里等 七名을 無條件으로 釋放하고 그後又(昨年八月二十一日) 民國廿二年에 徒刑八年을 言渡밧고 江蘇省第一監獄에서 服役中이든 中國共產黨首領 陳獨秀도 二年으로減刑하야 釋放出獄케하엿다。그리고 昨年九月初에는 極東赤化大로 一九二四年上海에서 活動하다가 逮捕되야 無期懲役을言渡밧고 蘇州監獄에서 服役中이든 國籍不分明의 놀덴夫妻도 釋放하엿다。

昨秋(九月二十二日附)國共合作實現以來 兩黨사이에 多少의 [illegible]이 업지안흔것은 아니지만 [illegible]에는 共產黨의 [illegible]을 要함으로서 蔣政權은 漢口死守를 앞두고 以上廿六名의 共產黨員에 對한 國共完全合作을 圖하는 것이겟지마는 이것은 同時에 從來共產黨에서 提唱하든 統一戰線政策에 國民黨이 全面的으로 屈服한것을 意味한다。(月曜)

正陽關陷落切迫

壽縣도完全占領 安徽省西北方의戰況

【南京五日發同盟】壽縣(安徽省)占領部隊에 呼應 西進中의 我一部隊는 그西方正陽關에 肉薄, 五日午前十時砲兵部隊掩護射擊에 城壁下五十米까지 進擊, 壯烈한 肉彈戰을 繼續中으로 正陽關의 陷落은 時間問題로되엿다

【南京五日發同盟】西南方에進擊中의 我〇〇部隊는 五日午前[illegible]時二十五分 壽縣을攻略 城頭노피 日章旗를 날리엿다 壽縣은 鳳台로부터 淮河를거슬러올러가기十里 肥水河口를距한 十里의 焦岡湖畔에잇는 淮河水運及 陸路의 要衝으로 人口約四萬 安徽北方貨物의集散地로서 商業이殷賑하야 前에 楚가國都를옴기고 漢의淮南國도 都邑하엿든 歷史上有名한곳이다

壽縣正陽關을猛爆

【南京五日發同盟】壽縣, 正陽關을 攻擊하는 陸의 荒鷲群, 釘宮部隊及 前島部隊는 四日壽縣西南方으로 退却中의 約一萬의 敵部隊를發見하고 이를猛擊, 다시 機銃掃射를行하야 甚大한 損害를주고 繼續하야 五日壽縣城內及 正陽關死守의 敵部隊及 西北方에 脫出하는 敵集團을 反復攻擊하야

內閣參議缺員 二、三名補充豫定

【東京電話同盟】近衛內閣은 陸軍, 外務, 大藏, 商工等의 中心閣僚의 更迭에依하야 徐州戰後의 新段階에 對處할 鐵壁의陣容을整頓하고그內容强化工作의完成에伴하야 內閣參議中으로부터 압서 內相에 就任한末次大將을 爲始하야 宇垣, 荒木兩大將池田成彬等四參議의入閣을보게되여現在參議로서 事變處理의 籌備에參畫하고엣는者는 町田, 安保, 前田, 秋田, 松岡, 鄕의六氏뿐으로되기때문에 近衛首相은 擧國一致의 體制强化에 備키爲하야 近近參議二三名의補充을 行하게될模樣으로 近日中에 板垣陸相과協議하고 陸軍關係로부터 一名其他二名을 補充하게될 模樣인바 陸軍側으로부터는 前上海方面最高指揮官松井石根大將이推薦될것으로觀測된다

八面鋒

◇ 開封도 遂陷落。 어제는 鄭州, 洛陽?。

◇ 洛陽은 天下之中。 失中守邊『宣戰』도 내리라。

◇ 廿萬 漢口市民에게 드디어 避難命令。 어겻도 『先見之明』?

◇ 政友總裁는 公選키로。

◇ 政黨員의 傳家秘技, 選擧運動의 粹를 다할라。

◇ 交通巡査를 大增員。 고·스톱의 親切味도 『增員』이必要。

◇ 物價昂騰의 抑制策講究도 고마우나。

◇ 講究期間을 短縮해주는것이 더고마울일。

人事·集會

◀有賀光豐氏(貴族院議員) 夫人同伴八日午後一時三十五分着入京豫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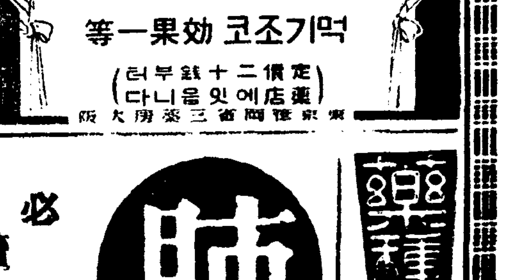
◀古川鐵道局長 渡東中이든바七日午後三時廿八分 노조미로歸任豫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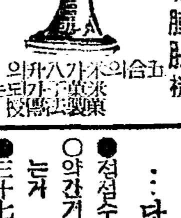
◀田中志男氏(外部)警察部警務課勤務 人事次 六日本社來訪

◀漢滿武氏(坡州警察署長)新任人事次同上

◀吉井勳男氏(金浦警察署長)同上

地方石油特約店募集
紅星票 幸福票
TEXACO
前仁川大洋商會의 テキサス石油販賣區域을移權特約하야 販賣를始作합니다
石油、揮發油 機械油其他油類一切
テキサス石油會社、仁川中心 西海岸及、黃海道總代理店
仁川石油商會
仁川府本町三丁目二番地

百日咳에

コデス
먹기조코效果一等
定價二十錢부터 藥店에잇슴니다
[illegible]

リード式穀物膨脹機 돈벌기大王

新型各種(カタログ進呈)
大阪市北區兒島町九番地 兒島製作所 (電話北3238番)
五合의쌀이八升가되는 [illegible]

不老長壽 强精回春 更少幸藥
百補丸
一劑一圓十錢
京城堅志洞 平和堂

合理金ペン付 (品質保證)
SAFETY
セフテイ
高級萬年筆
[세후티]

朝報案內
電話高價買入 京城府南大門通一ノ三 京城電話仲買店 李龍 電話本局四七七
看護婦大募集 派遣多忙으로急募 [illegible] 東京旅館內 [illegible]
社員數十名招聘 日收入五十圓以上確實 [illegible]
易理 生年月日과 四錢切手十枚 [illegible] 京城府黑石町八八 申石亭

松の實ミルクキャラメル
京城菓子株式會社

リグレー

五月雨가眼前에迫頭하고…
暑熱의徵兆가옵니다
…이不健康季에는…
飮食物에特別한注意가肝要합니다
リグレー製純粹眞正의チウインガム는消化를돕고口渴을업샙니다
일이나運動遊戲로부터오는疲勞를容易하게回復합니다
每食後에씹어주십시요

本社營業局直通電話
廣告部 本局四〇三〇番

藥種商講義錄
新版出來
見本無代進呈
毒劇藥改正
京城鐘路二丁目一四四 朝鮮藥業研究社

必讀
肺患
診斷常識
…당신은…
●점점수척해지지는안는가
○약간기침과 담이나오지는 안는가
●三十七度一二分의熱이每日午後부터 夕陽에걸처서 나지나안는가
○盜汗과 不眠이 繼續되지나안는가
●어쩐지 몸이무겁고 胃腸도나쁘고 食慾不進의 날이 繼續되고 動悸가나고 숨이잡브고 어깨가결리고 가슴이 아프지나안는가
…이것은肺病初期의症狀입니다…
●저녁에 만어지고 담에 만코 때로血線이 석겨저나오는가
○貧血과 衰弱이 더하고 顏色이나빠지나 안는가
●每日三十八度가깝은 熱이나지나안는가
○頭痛, 不眠, 盜汗, 便秘, 胸痛가든 苦痛이업는가
…이것은肺病의第二期症狀입니다…
그러나 悲歎마시요 正當한療法으로
肺病은! …治療된다……
……正當한療法……
肺알는이는 只今곳『朝鮮日報에서보앗소 冊보내시요』라記入한 葉書를 左記의곳으로 보내시요 釋迦님의 金言을 基礎로해서正當한 治法을가르친 〃肺病治癒의原理〃와 寺傳秘方公開〃光明のあなたへ〃의 二冊을
無料送呈 다합
大阪府布施市 功德山 德林寺

朝鮮美術展覽會 地方巡回를計畫

學務局에서重要都市에照會

結局實現性은薄弱?

총독부학무국에서는 지난 오일부터 개막된제십칠회조선미술전람회(朝鮮美展)의 회기가 끗나면이것을 평양(平壤)부산(釜山)등필요한각 도에 순회개최하고자방금각 도의 의향을 서면으로조회 하는일방 총독부로써도 처음개최이만치 그구체안의 연구를거듭하는중이데 이것은 조선예술계의 발전향상을위하야 자못흥미잇는계획이나 그 실현에 잇서서는 여러가지 난관이잇서서 파연금년중에 실현이될는지 의문이는동시에 관계방면의 주목을끌고잇다

그내용의대개를보건대 조선미술전람회를 지방순회개최하자면조선미술전람회규측을 개정하여야할뿐아니라 미술전람회 예산을증가하지안으면 안되는것인데금년도미술전람회예산은 이미결정되엿을뿐아니라 미술전람회규측은아직까지개정할수업는한일이업스므로 지방순회개최를실시한다하드래도 금년에는 곤난한형편이오 또미술전람회 입선작품을 가지고 조선미전의 명목을붓처나서 그대로순회개최를 한다면 첫재로 작자(作者)의 승인이 잇서야되는 것은물론 각도의 희망과 예산이 엇서야하므로 이도또한 용이한문제가 아닌쪽 그실현이 또다시 곤난한것이라한다

管下二十餘稧의 內容을嚴重調査

龍山署、斷乎取締方針

지난삼일 시내아현정(阿峴町)사백십사번지에사는 우계순(禹桂順)(三○)이라는 여자가 오륙년동안을두고 부인계를 빙자하고 기기묘묘한 수단으로 계원삼백명에게서 계돈오륙천원을 편취하여먹은 근래에 그리드지못한 대사기사건이 세상에 폭로되엿다함은 기보한바이나 이를계기로하여 소관용산서에서는 현재 관할내에잇는 삼십여개의 내용을 세밀히 검토하고 혹시나부정한 계가잇지나 아니한가하고 엄중히 취체를 진행하고 잇다는데 만약조금이라도 부정한계가 발견될때에는 용서업시 엄벌혹은 해산을시킨다고한다

百貨店을舞臺로 學友詐欺劇一幕

虛榮에들뜬少女의마지막길

子女敎育에一警鐘

현란화려한 백화점의 유혹에 물든 동심(童心)이 비저낸 대담하고도 교묘한 사기사건이화신백화점을 무대로 버러저 어린자녀를둔 가정은물론 사회교화에 암시를 주고잇다

비오다가개인 닷샛날오후세시쯤되여 현저정(現底町)삼십이번지의일호 최우섭(崔于燮)씨의맛딸 륙상정(稷上町) 신명학교(新明學校)이년생 인복(仁福)(一二)이는 아버지한데 현금이십일원을 어더가지고 종로이정목 화신백화점으로 학용품을사러갓다가일층에서 그전 학교동무 차미자(車美子)(一二)(假名)를만나 서로인사 기뻐하면서도를가지고잇는줄알자 미자는 오래간만에 만낫스니식당에가서 점심이나가치 먹자고 꼬여 일원오십전의 음식을 먹고감추가되 나어린인복에게식대를 물게하고는나와서 현금이십원을장공산책보를 사가지마럿다 수마하고 그대로 종적을감추어버렷다 그제서야속은줄알 인복이는 대성통곡을하며 고소로서에알렷스나 천재사기소녀는 작년말소명학교를중도퇴학한아이래 일정한주소도업는불량소녀리 그행방을알수업서동서에는서게속엄사중이다

電車에소매치기

부내창신정(昌信町)유백팔십칠번지의유호경기도청 고원정익수(程益秀)(二三)는 사일밤열한시 종로삼정목 전차안에서 현금 삼십오원 각수를 소매치기에게 절취당하엿다고 소관 종로서에서 범인을엄탐중이다

芒種

派遣三事務官에 南總督訓示

북지와 몽강(蒙疆)에 적극적으로 진출을 도모하는 총독부에서는 북경과 장가구에 각각 출장소를 개설하고 수재사무관을 결정하엿는데 고교(高橋)창도(倉島)삼삼(參三)사무관은 유일오전열한시 총독부외무부에모여서 송택(松澤)외무부장을 중심으로 금후의 대북지공작책에 대하야 여러가지 타합을 하얏다 계속하야 정오에는 총독실에서 대야정무총감 송택외무부장이 입회하고 우삼파견사무관에게 남총독으로부터 조선과북지의관계에대한 훈시가 잇섯다 더욱 창도、삼양사무관은 이삼일중 현지에출발하고 고교사무관은 만주관계의 사무가잇스므로 약일주일후에 현지로 향할터이다

大連埠頭의 倉庫二棟全燒

【大連六日發同盟】오일오전열시 오십분경 대련(大連)부두구내동쪽창고안에서 발화하야 순식간에 전소하고 서편에 인접한제백삼십호창고와 동편 제백이십륙호창고에 연소되여 이두창고도 거이전소되엿다 급보를 바든 각소방대가 협력소방에노력한결과 오후두시저나서 겨우 진화되엿는데 원인은 조사중이다

侵入한窃盜 格鬪끄테逮捕

시내 북아현정(北阿峴町)이팔번지 여춘환(李春煥)(三二)이란자는 오일밤아홉시경 시내 청진정(淸進町)청진의원에 들어가서 응접실에 거러둔손님의 양복여선벌을 훔처가지고 도주하다가 그병원소사오장영(吳章榮)에게를 키여서 일대추격전이 이러난뒤에 붓잡혓는데 범인은 본정서에 데리고왓스므로 동서에서는 엄중히 취조한결과 이자는 빈집을 노리고 단니는 절도상습자임이 판명되엿다

訪伊少年團에 田中君을派遣

전번이태리방일친선사절단(伊太利訪日親善使節團)과 이태리방에의하야 제국파방공(防共)의 맹방(盟邦)이태리와의 결합은 더욱 물질、정신양방면으로 공고하게되엿는이때 대일본소년단련맹(大日本少年團聯盟)에서는 일본이태리양국의친선관계를 다시한층 더 증진하며 겸하야 방공맹방동양기모국소(東洋)간국소년단의 상호방문으로 이번 일본내외로부터 선발한소년단원으로써 이태리파견단을 조직하야이태리 독일 서서 영국 을 경유하여 오는다 동소국에파견하기로되엿다 그리하야 조선대표로는 경성남산정이단(南山町二丁目)강부 전중부실(田中大雄)군으로 결정하야 파견하기로되엿다 동군은 제이십국전기파기사전중소학(田中)의 영제로서현재경성고등상업학교(京城高商)상학부 재학생이다 이이태리파견단은 오는이십삼일 신호(神戶)출발선편으로 출발할 예정이다

勞働力飢饉의主因은 協調精神不足에서

中間搾取의傳票制는取締가必要

社會主事會議席上의重要議題

총독부에서 육일부터 삼일간 각도사회주사(社會主事)회의를열고 군사호원과 노무조정(勞務調整)에관하야 중대한협의를 한다함은 기보한바어니와 이회의에서 토의할노무조정에대한 사항은 전후삼십삼건인데 그중에도특히 가장중요한몃가지를들면

一、勞働者의養成訓練에關한件

二、殘留家族의保護에關한件

三、傳票貸具取締에關한件

四、勞働者의生活必需品價格에關한件

五、勞資協調에關한件

六、勞働者의就勞地에서保護指導의徹底에關한件

등인데

▲대개조선의 노동자는 대부분이 농업자로써 토목건축、광산 기타 특수공사에는 그다지 경험이업서서 능률이나지안흐며 인내력(忍耐力)이 부족하야 총독부에서 모처럼알선한것도 이동이빈번하야 공사진행에 막대한곤난을밧게되어서 결국노동수급조정의원활을 도모키 곤난하게되므로 금후로는 어떠한방식으로든지 알선할노동자를 충분히 훈련양성하기로 하는것이다

▲알선노동자는 목적에 고향을떠나서 공사현장으로 가버리면 집에나머잇는 가족은 그가장으로부터 생활비오기만 고대하고잇게된다 그러나 노동현장에간그가장은 당초떠날때에 경과가티 되지못하야가족에게 생활비 보내는것이 여의치못한 경우가 종종이게되여서 가족의 생활의 곤난을 면치못하게될뿐아니라 가장을일호연만치 그가족들의 제반것이 곤난하게되엇스므로 이를가족에대하야 소관당국으로부터 충분히 보호하야 멀리 노동시장으로 품파리간 그들로하야금안심하고노무에종사하도록하기로되는것이다

▲광산이나 토목건축공사장에는 대개 악덕상인의 발호가심하야 무리한 폭리로 박금의노동자를 울리는것이 보통잇는터상이므로 노동자의 생활필수품의 가격을엄중히감시추체하야그들노동자의경제를보호하기로한다

▲매년노동자는 태반부족한중에도 금년가을에는 지금까지동원된 대량의노동자가 겨우작년도로부터 넘어온노동사에 종사할뿐이오 금년도신규공사는 조금도착수하지못하고잇는동 노동자의비상한부족을 보게되는현상인데 이에대하야는 여러가지이유가잇스나 근본적원인은 노자협조(勞資協調)가 원활치못한까닭인즉 이것을 철저히 조사하야 노자양방의원만한 협조를도모하도록하는동시에 재범하야노동자들 극력보호하라는것이다

▲노동자는 매년불족이되면총독부기타기관의알선에의하야멀리 공사장으로 품파리를가는데이들은다만에 호로가잇는만치라반의 악할곳이업스므로 질병기거강상 고장이발생하면 치료상으로에비상한불편이잇스며 십장(什長)하청부업자(下請負業者)등의 무리한압박으로하야 비상히곤경으로 지내는경우가 잇다도한 적지안흠으로 이와가튼 악폐를 한압하는동시에 노동자의 건강기라에 극력 보호하야 그들로하야금 안정을 엇도록하도록하는것이라한다

大邱⇄永川

廣軌改良工事完成 七月一日부터開通

永川、慶州間도明年度竣工

철도국에서 총공비 일백륙십만원을 드려서 재작년부터 공사를 하여오든 동해중부선(東海中部線) 대구(大邱)영천(永川)사이 삼십사키로의 광궤개량공사(廣軌改良工事)는 거의 완성되엿스므로 오는칠월 일일에는 개통하게 될터이라한다 아프로 영천경주(慶州)사이의 삼십삼키로도 명년에는 완성될터이므로 이것이 전부완성되면 신라구도(新羅舊都)경주를 유람하는 여객에게 훨신 편리하게될터이며 일반의불편도 훨신줄게된다 하게될터이리한다

이번에는"假憲兵"

自稱滿州國憲兵이라하고 市內橫行利權運動費騙取

警察當局犯人嚴探中

만주국 헌병이라고 자칭하고시내를 횡행하면서 리권운동금을 편취하는자——최근 박승현(朴勝鉉)이러자가 자칭만주국 헌병이라고하면서 헌병의 정복정모에 패검하고 도라단이면서 시내 명치정(明治町)일정목 권모와종로사정목 이모를위시하야 만주국의 리권을 운동해준다하고운동비로 각처에서、다수의 금품을편취하는 사건이 잇슴을탐지한 경찰당국은 이가짜만주국헌병을 체포코저 각지에수배하는 동시에 수사에노력중이나 범인의 행방은 알수업스며 그가차고단인불한 패검이 요지음 광희정 사범학교 근처에유기된것이 발견되엿스므로 이것을 단서로 엄탐중이다

醉漢轢死

【鐵道局着電】오일오전두시쯤에 함남홍원군홍원면중흥리(洪原郡洪原面中興里)사는 목수 김명후(金明厚)(四三)는 술이취하여 철도선로로 지나가다가 렬차에부다처여 머리가 깨여저서 즉사하엿다한다

沐浴湯盜賊

남을벌가숭이를 만드는 홍속한도적——사일밤 아홉시쯤되여 부내청진정(淸進町)팔십팔번지청진탕(淸進湯)에서 목욕하고잇든

今夜의라디오

第二放送▲午後六時二○分 이야기와實談 郵寅燮 外貨償兒童▲六時五五分 어린이新聞▲七時 週間情報▲八時 大衆講座 安命煥▲八時三○分 獨唱 河大應、피아노伴奏 金元宇▲八時五五分 라디오小說 孤京順▲一○時一○分 國語講座 宋今璇

第一放送▲午後六時 (東)問答▲六時二五分 講演(京城)▲七時三○分 (東)歌謠▲七時四○分 (東)講演▲八時 (大)드라마▲八時四○分 (東)新內▲九時 (東)漫談

色鉛筆

미술전람회에서 보면 자기얼굴을그린 자화상 제얼굴을 새여내인 자작상이란것이 흔히잇다▲풍경을 그리는것보다 얼굴을 그리는것이 힘든다고하는데 그이유는 그리는그것이힘든다는모양이다▲다그리가운데 그사람의살어잇는 정신이 나타나도록 그리는그것이 힘든다는데는 그사람의 얼굴을그리는데는 그사람의 얼굴에 나타난 정신이 어떠것이나를 차저내는것이 힘들것이지만▲제얼굴을 그리는데는 그자신이 가지고잇는 제마음을 너머도 잘알기때문에 그얼굴에 어떠정신(표정)이 나타나게할것인가 오히려 더힘들것이다▲그런것을제얼굴을보고또보고 마음을생각해보고 또생각해보고 붓을들어 그 얼굴에 무엇이나 타나잇는가?또그얼굴에 무엇을 나타내일가를 그린다는것은 실로 어려운일일것이다▲생각하면 화가가아니라도 자화상 하나를 그리면만큼제얼굴、제마음을 기괴 살펴보고사는일이다

"辱說"에憤慨한犯行

開城舘酌婦殺害犯에十年役求刑

지난사월하순 부내창신정(昌信町)오백사십칠번지 내외주점개성관(開城舘)에서 번심한 정부 이순희(李順姬)를죽이로 찔러 죽인 경기도양주군백석면복지리(楊州郡白石面福地里)유흥수(柳興秀)에 관한살인피고사건의 공판은오일경성지방법원에서 복포(福浦)재판장주심 전평(田平)검사관여하에 열렷는데 이사건은 당시피비린내나는 처참한희제를 터첫던것이니만치 방청자가 쇄도하야 방청석은 초만원을 이루엇섯다

피고 유흥수는 이순희를 살해한사실에 관하야 최초부터 살의를품고갓든것은 아니며 갈라질생각으로 사진을차지러 갓든바 이순희는 피고에게『거지가튼녀석』이라고 욕설을퍼부음으로 칼질을 하기시작한것인데 처음에 머리를찔른것은 기억하고잇스나 그다음은 어떠케되엿는지 모르겟다고 진술하엿스며 현장에서 개성관사람에게 뿌린『폭마린』이라는 약품은 최초 자살할목적으로 구입하엿든것이나 서입이격파하야에따러 마음약하여고는 죽음의사를 버리게되엿스며 살해한날로 피해자가 조선에게이를 보엿서도 죽이지는 안한것이라고 진술하엿다고 검사로부터 피고를징역십년에 처하여달라는 구형이엇섯다 판결언도는 오는이십일 선고할 예정이다

寡婦어머니의 大金을窃取逃走

市內各署에手配、嚴探中

시내 내수정(內需町)칠십번지의 어성호 김북쇠(金北逝)이란 과부의장남 윤봉오(尹奉五)(二○)는 사일오후네시경 자기어머니의 손궤속에서 현금일천구백십원을 내여가지고 집을나갓스므로 그의어머니는 시내각서에 수색원을 제출하엿다

紳士色魔上告審

檢事、上告棄却意見

자기친척의 결혼식에 참례하려고『모ー닝』을입고 상경하야부내광화문통(光化門通)고려(高麗)『호텔』에 묵고잇든중 작년십일월 십삼일오후 두시쯤 그곳 하녀에게 폭행을하야 강간치상(强姦致傷)죄로 일심에서 징역이년의 언도를 밧고 복심에서 평양 면업(綿業)대표인소위『모ー닝 신사』김봉변(金鳳)에관한 상고심공판은 육일고등법원에서 삼전(森田)재판장수심 산택(山澤)검사관여하에열려 검사로부터 상고기각의 의견진술이 잇섯다

스포ー츠欄

高專蹴球B組에 高商優勝

本社社長盃獲得

朝鮮學生蹴球聯盟主催의 第二回大學、高專春期蹴球리ー그B組最終日의 高商對高工戰은 五日午後四時半부터 大學球場에서金成村氏主審에 高商킥어프로開戰된바 結局一對一同點으로 無勝負로마치엇다 이로써 高商軍은 三戰二勝一無勝負의快記錄으로優勝하야 朝鮮日報社長盃를獲得하얏다

高商1(1─0 0─1)1高工

7……5 早慶野球二回戰 慶應軍雪辱

【東京電話】六大學野球리ー그戰早大對慶應一回戰은 早大軍先勝의 뒤를이어 五日午後一時半부터 神宮球場에서 天知(球)蜂井、吉相、角田(壘)四氏審判아래 慶應先攻으로開始한바 結局七對五로 慶應軍이 雪辱하엿다 (審判櫻井(早大淺井 近藤ー小暢)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慶應	2	0	2	2	0	0	0	1	0	7
早大	3	0	0	0	0	1	0	0	1	5

이리하야 早大는 今씨ー즌에 七勝三敗하야 明大와 同率로되여 兩軍이 優勝을 다투게되엿고 慶應은 五勝五敗로 立敎의 四勝五敗一無勝負를 凌駕하야 五勝四敗一無勝負의 法政에버금가는 第四位를차지하게되엿다

全朝鮮高專 庭球戰績

朝鮮學生軟式庭球聯盟主催의第四回 高專對抗庭球리ー그 第二日은 降雨로因하야延期되여 今六日午後零時三十時부터 京城運動場 ABC三코ー트에서 繼續擧行한바 이날夕刊마감까지의戰績은 다음과갓다

【第一部】法專20…3高工

○	貝田	4…0	行則 ×
○	辛金	4…3	西村 ×
○	洪濟	4…0	西田 ×
○	朴渉	4…0	久保 ×
○	許川	4…2	松澤 ×
○	李大容	4…0	朴吉 ×
○	姜內	4…1	宮田 ×
○	李良	4…0	李東 ×

高商19…9藥專

○	長田	4…3	李 ×
○	中井	4…1	金 ×
○	吳仁	4…1	洪 ×
○	姜本	4…1	金 ×
○	松井	4…0	李 ×
○	安田	4…0	金 ×
○	張田	4…0	李 ×
×	相東	3…4	朴 ○

【第二部】醫專17…11藥專

○	張仁煥	4…3	金弘 ×
○	崔永河	4…3	李文 ×
○	林俊	4…1	管 ×
○	朴成	4…0	李 ×
○	金	4…0	李 ×
×	金元	1…4	林 ○

高專劍道에高商連覇

朝鮮學生劍道聯盟主催 第二回高專劍道大會는 豫定과가티 五日午前九時부터 光化門通警察官講習所道場에서 第一部에 普專、高農、大豫、醫專、藥專、第二部高工、法專、高商、大邱醫專、齒專等의 十個校가 參加한가운데 第一部首位校인 水原高農軍과第二部首位校인 京城高商軍이 決勝戰에서 對時케된바 高商軍이十對七로 高農軍을 壓倒코連勝하엿다

運動界集會・人事

▲郵國振君(延專蹴球LW)은 지난一日의 競技中에 脚部負傷으로 世專病院에 入院加療中

若草劇

七日 一日限り好評に付き日延べ!!

太陽の子

奴隷船

見逃す勿れ

入場料五十錢均一

尤先ー三十錢짜리를試用하시라

瘧疾(학질)과 鼈腹(자라배)은 金鷄丸으로全快

頑固한여름의 感氣에도特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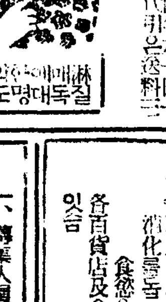
定價 二十錢・三十錢・五十錢・一圓

本舗 樂天堂製藥株式會社 京城府

早漏防止

國境大藥房

振替京城二二五一番 四三九番



性器强大藥

男子性器短小와 早漏에百發百中!!

大同工業專門學校 生徒募集

一、募集人員 鑛山學科第一學年 約八○名

二、出願期限 昭和十三年六月十六日迄

三、出願手續

四、試驗科目 國語(講讀作文)漢語、數學(代數幾何)、化學及身體檢査口頭試問

五、試驗日割 六月十八日ヨリ六月二十二日迄

六、試驗場 平壤府新陽里元崇實專門學校跡

七、願書受付場所 平安南道廳內

本校假事務所

桃屋의 花らっきょう

夏節의食卓에 消化를돕고 食慾을增進함

各百貨店及食料品店에잇음

レコード 蓄音器 樂器

カタログ進呈

卸門屋

菊谷商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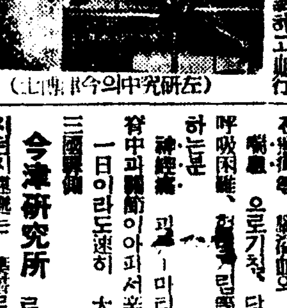
名古屋市 ... 電話本局三四五四番

振替名古屋一八五三一番

腦病・神經痛과 高血壓 中風

今津博士의굉장한研究

不治아니다



(左研究中의今津博士)

淨血劑

今津研究所

躍進!又躍進!!

ホールは大擴張!

內部は嶄新的裝飾

整へました

爽やかな初夏の夕べに

明るい樂しい豪華殿堂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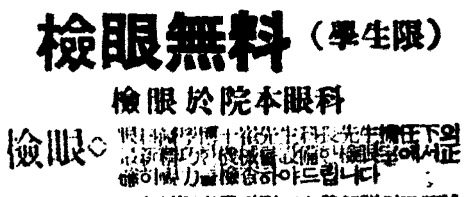
最新の設備

最高の陣容

最善の奉仕

バー ニユークラウンド

本町一丁目 電②一九九三(イタノミ)



檢眼無料(學生限)

檢眼於本院眼科

檢眼

眼鏡

京城驛前 セブランス病院

セブランス眼鏡部

胃腸壁の更生

胃擴張·胃潰瘍·胃弱·消化不良等은 同一病根으로發生、治癒法도 結局 病根을除去한다는一點에歸着

慢性胃腸病 이食餌의不適當 換言하면 人體에攝取하는 榮養의偏頗不均衡으로이러난다는것은 病理學의 定評입니다 멕가리손氏는 完全榮養에依하야慢性胃擴張을 治癒할수잇다고하고 아론、와이즈兩氏는 아미노酸의 一種인히스치진의缺乏을 補給하야 胃潰瘍의 治療에成功하고 또 消化障碍의大部分이비타민B의 缺乏으로이러나는것도 一般으로알려저잇습니다。

複合헤ー꿰 菌劑わかもと는 우리의 日常食餌中에 不足키쉬운 榮養成分을綜合的으로 含有할뿐아니라 消化機能의强化에特殊한 效果잇는엔쥐、호르몬性物質까지도 含有해서 體內榮養의 均衡을 保持함과 同時에胃腸壁實質의 細胞까지도 賦活强化해서 慢性胃腸病의 病理를除去하는點에잇서서從來의 胃腸藥보다 百步나압선것입니다。

世界へ輸出

弱腸を强健に

常習便秘와慢性泄瀉도똑가티快便으로 恢復시키고腸의實質을强케하고榮養의 吸收를노피고衰弱을恢復함

腸疾患은 泄瀉及便秘의二大症候로區別되고 또 한疾患이생기는 部位、障碍의性質、程度、細菌의有無等에依하야 細別되는故로 對症藥劑에依하야治療하려고하면 그處置는多岐할뿐아니라 對症藥의副作用에따라 泄瀉와便秘가티全然相反한症候로 連絡하고 或은 連續해서이러나는일이적지안습니다 그데런複合헤ー꿰菌劑わかもと에依하면 障碍의部位와 症候에不拘하고治療할수잇슬뿐아니라、

對症藥과 併用해서 그效果를加重하고 副作用을輕減할수잇다는 特色이잇습니다。即わかもと는 腸粘膜의實質細胞를 强化해서衰退한 機能을 正常케還元하는것인故로 泄瀉와便秘도一劑로써 正常便으로恢復되고 連用하면 漸漸强腸의效果를增大합니다。

腸內の殺菌淨化

腸內에는無數한 細菌이棲息하고각금 異常醱酵를이르켜서 毒素를發生하고 血液、皮膚를 汚染하고動脈과肝臟을 硬變하고腦神經을 冒害하야 短命의原因이된다는것은 메치니코프、슈밋트氏等의 唱道한바언데 わかもと는 强力한活性微生物劑로서腸內의有害細菌을驅逐하고 醱酵를抑制하고 毒素를吸着해서 그害惡을 除去할수가잇스므로 單純한腸內淸掃뿐아니라 血液의淨化、皮膚의美化、不眠과神經衰弱의治療로부터 早老、老衰의 豫防까지도꾀할수가잇습니다。

榮養素の寶庫

わかもと의含有한 榮養素는十數種의 多數를算하게되지마는 그主要한것은 리진 히스치진 누구레엔等의 아미노酸에 세린 치스친等의 脂肪酸구리고ー겐及칼숨鐵가리움等의 無機物비타민ABDE等으로서 特히 비타민B複合體에이르러서는 生物界隨一의 吸着量을자랑하며 慢性衰弱病恢復의 效果는顯著한바가잇슬뿐아니라 그綜合인 細胞原形質賦活作用에依하야 自然히虛弱한 肉體組織을 强靭케하고 抵抗力잇는體質을 養成할수가잇는것입니다。

헤ー꿰菌劑의簡易한 **鑑別法**

眞正헤ー꿰菌劑는 獨逸藥局方이보이는 바와가티 鮮麗한黃褐色을呈함 灰白色을呈하는것은 澱粉等을 混入하는것으로서 試驗管內에서물에녹여고 一滴의[illegible]를떠러트리면 [illegible]色의沈澱을[illegible] 또 わかもと의小量을試驗管에 넛고過酸化水素水를따르면 굉장히氣泡를發生해서活性의 强함을보입니다 類似品은 活性이弱하기때문에 氣泡가적음。

貧血の原因療法

鐵劑나 動物肝臟도效果가업는惡性貧血도헤ー꿰菌의投與로恢復·特히結核性貧血에效果。

貧血에鐵劑 或은 動物肝臟을 投與하는것은從來의 常識입니다마는惡性貧血에對해서鐵劑는 거이效果가업고 또 動物肝臟도 모든貧血에有效한것은안입니다 이에對하야 最近자이데헤롤氏等은 비타민B_2의投與가貧血의恢復에顯著한 效果가잇슴을發見햇는데 氏等은 헤ー꿰菌劑를비타민B_2의給源으로 使用햇습니다。

京都帝大의 吉田氏는先般わかもと의 投與가增血에著效잇슴을 動物實驗에依하야 實證하고前記자氏의 경우에는 特히 血小板의增加를 吉田氏는白血球의 增加가顯著하다고 報告햇습니다。이러한事實에依하야 わかもと가結核性 胃腸性 熱性等의 惡性貧血에對해서 從來의藥劑가 따르지못하는效果를 發揮한다는것을알게되엿습니다。

大景品

只今全國藥局에서わかもと(一圓六十錢)一個사실때마다

一等、寫眞機 又는 高級自轉車

二等、電氣時計 又는 置時計

三等、銘仙夜具地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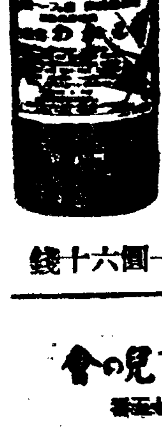
以下二十等

까지반드시當選함!

空前의大景品付懸賞特賣中입니다。

胃腸 榮養 エフー菌 わかもと

와가모도



藥價低廉 一日僅か數錢

粉末九〇瓦·錠劑三〇〇錠 各一圓六十錢

東京 芝 株式會社わかもと本舖 榮養と育兒の會

반딧불

지금에잇서서는 아모리 조흔 사진스기의렌즈를 가지고도 반딧불을 박을수업습니다。이사진은 암실속에서 사진건판우에반딧불을놓아 기어다니게해서 감광시킨것입니다。그러고 보면 반딧불의빗치 나지만 정작 반딧불벌레가 나타나야지요。그러서 마지막에는 카-본전등 [illegible] 바로우에서 오십분의일초정도로 로광을줍니다。이기에쓸 건판은 『에스에스땅크』 바닥파문이의 청함은 따로 찍은것을 겹처서 현상한것입니다。

누구나시려하는 군색한살림
무슨수로면할수잇슬까
④ 비결은오직저금에잇다

돈이를 부르면서도 실상저금이 잘안되는것은 장사하는가정입니다

매일 현금이드러오기때문에 자연히 생활이 호사스럽게되어 씀씀이가 헙부로되기쉽습니다

도부리는사람들이 만흔편게도 잇서 그들생활비를 조사해보면 웬만한상점을 가진사람은 은행회사의 파장급이상인것이 보통입니다

현금이야 매일드러오지요 그러치만 그것이 일정하지안흔수입이기때문에 가게의예산을 세우기가어렵고 가령음식점 배달이 제일만히 드나들기도 장사하는 집이라고하느니만큼 자연객돈이만히나갑니다。이점을 장사하는집주부는 각별히생각하서야할줄압니다 당대에 치산을하는것이 장사하는것이라면 또한 만흔재산이 당장업서지기쉬운것도 장사입니다

부정확한 수입이라고해서 예산생활이 안될까닭은업는것인데 매일 현금이 드러오더래도 그것을쓰지말고 모두저금을해버리고 지난달치수입의 순이익을가지고 한달의생활예산을 세울수잇는것입니다

이달에는 세월이조와 만히드러왓다해서 마구써버리면 내달에 세월업슬때 물건사드릴돈이업서 쩔쩔매는수도잇슬것입니다 그런즉 이식으로 나아가면 도저히 저금이란 동전오리도 해볼수업습니다

그러나 그와반대로 부정수입을 이용해서 하로의몃시부터 몃시까지에 드러온것만은 꼭저금을하기로 한다거나해서 만커나 적거나 꼭꼭저금하는방법도 재미날것입니다

매일 현금이 드러오는장사집에서는 우편저금보다도 일보(日步)라는 별리가붓는은행의당좌예금(當座預金)이유리합니다 갑흔은행에서는 백원에대해서 일보오리의 이자가붓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장사하는사람은 돈이돌아야 손해가만코 적은이익을 차저가는것은 때이만흔것인데 황금을 쌋는것은 이외에더업느니라』햇습니다 즉저축을장려하는 것입니다 명분안되는돈이 실상은 깔볼수업는것입니다 저금을 시작할때 영구히계속할 굳은마음을 가지고보면 천량을자손에게 물리기란용이합니다 저지말고아시거든 하루에일전시만 꼭꼭저금을 해보십시요 일백삼십삼년만 계속하면 실로오만원이란재산이되고맙니다

아모리잘닥거도 이가벌레먹는다
구차한집애들에게적음은웬일?

金喆庸氏 談 齒科醫師

유월사일은 충치방지데-입니다。세상이 차차 문명해갈사록 이충치는 느러간다고 합니다。그러므로 지금은 소학교 아동에게 잇서서도 백명의 칠십명 칠십파-센트의 아동은 충치를 가지고잇답니다。충치를 업시하는것은 한나라국민의보건상대단히 중요한일입니다。

사탕은이를막까는것

그런데 어떠케하면 이벌레먹은이를 업시할수잇슬까하는데대해서는 전보다 만히 고심해오바인데 전에는 그저 이를 잘닥고 깨끗이 거두면 벌레먹은이가 생기지안는줄 알엇지만 그것보다도 더한칭 나아가 근본적으로 예방하는데는 영양상의 주의등으로부터 벌레가 합부로 이를파먹지못하도록 튼튼한이를 만드는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오즘에와서 더한칭 중요시하게 되엿습니다。

사탕의해

단것을 만히먹으면 이가 납버진다는것은 잘아는사실입니다。먹고난다음 이를깻닥는대도 그것은 소용업습니다。웨냐하면 몸에드러간 당분이 뼈의 칼슘을 녹여내여서 이를 약하게하는작용을하는까닭입니다。여기에 통계를 보면 더욱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즉집안이 넉넉해서 과자나 그밧게 단것을 만히먹는 아이들과 가난한집에서 군것질을못하는 아이들을 비교해보면 가난한집 아이들의이가 훨신더조코 충치가 업습니다

일본내지에 제일상류가정의아동만 모히는 학습원(學習院)의 아동가온대는 충치가업는 아동이백명가온데겨우셋밧게업고 그남아지 구십칠명은 한아이아페 충치열세개의평균이된다고합니다

그리고 당분을만히 먹지못하는 고아원아동들을 조사해보니까 충치업는 아이가 백명가운데 사십삼인그밧게오십칠명은 충치가잇다해도 한아이평균에 一·三밧게되지안흐니 과자나 단것을 만히먹는것이 이에얼마나 해로운것은 알엽이안입니까

그리고 더구나 사탕가운데도흰사탕이 더납브고 검은사탕은 그가운데 철,칼슘,인(燐),비타민등 가지고잇서서 피와뼈를만들어줍니다

갈슘만히든음식

이가 남부아이에게는 칼슘이나 비타민이 만히드른음식을 먹여서 차츰차츰 이를 튼튼하게 만드는것이제일조흔 바법입니다。

칼슘이 만히드러잇는 음식을들면 음식의분량百分중의 함유량은─

미역 四四三
시금치 一〇·一
돼지고기 一·三
말고기 一·一
다시마 三一一九〇
김 一一七三
닭고기 一·一
소고기 〇·七

이밧게도 군것질 시키는데는 파자보다도『비타민』씨가 만히 드러잇는 과실이 조코 또『비타민』띠를 만히 가지고잇는 시금치,토마토,무입사귀,차리버섯등의 음식을 만히먹으면 이가 튼튼해집니다。

『비타민』띠는 뼈와이의발육이 조치못한데 대단히만흔효력이 잇는데 이것이부족하면뼈의질이약해집니다。

햇볏을쏘일것

구루병(佝僂病)이란 뼈의병도 일광이 부족한 한대지방에 만흔데 이병의 치료는 자외선을 쏘여서 낫습니다。이로써보면 햇비츨쏘이는것은 『비타민·띠』를 먹는것과 마찬가지로 뼈에조흔것입니다。즉자외선의 작용으로 몸가운데『비타민·띠』가 생기는까닭입니다。

움물물의효과

일광은 어떠한 약보다도 몸에조흔 건강제인데 그러한 의미로써 햇볕을 쏘여서 몸을 튼튼하게하는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이를 조케하기 위해서 움물의물을 먹이라고하면 깜작놀라실분이 잇겟스나 사실은 그러습니다。

조흔 움물의물은 이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탄산칼슘이며,탄산마네슘이一올 가지고 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끄리면 이모든 성분이 얼마나 업서짐으로 할수잇는대로 그대로 마시는것이 조흔니다。물론 움물의 물은 그대로마시어도 조켓는지 의사에게 한번 검사해보이는것이 조흔데 조흔물이라거든 늘 마시게하는것이 대단히 유익한니다。

독충한테 물렷슬때에는

여름엔 독한버러지나 뱀가튼것에 물니기 쉬운때입니다。만일 이러한것에 물렷거든 위선독이 몸에 퍼지지안케 빨리입으로 물린자리를 빠리야합니다 그러케 한뒤에는 두손으로 힘껏눌느고 물린자리에서 피를 뺏습니다。입으로 빠릴때는 뒤에 양추질을하면 됩니다 또는 물린자리 외쪽을 무엇으로 꽉동여매여 혈액이 몸에 돌지못하게하고 물린자죽에 암모니아수를 바르면 독이 중화가되여 행경낫습니다。

그뿐아니라 보통모기에게 물렷슬때에도 암모니아수를 바르면 덜가렵고 부은것도 내립니다。여름엔 암모니아수가 집에잇스면 이럴때 잘쓰게됩니다。

우리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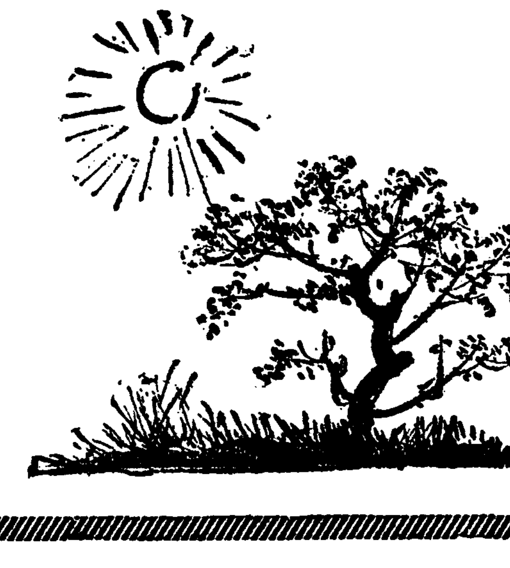
식물

나무와 풀들은 공기중의 탄산까스를 나제는 빠라드리고 밤에는 토해내고합니다

◇

나무와 풀들이 물을 제일만히 빠라올리기는 나제 열두시부터 네시동안입니다。

(금천사람장경욱)



신사양복
흰조끼를탈잡는분은 정말멋을모르시는탓

신사양복의 류행의원천이파리란든가 런던이라던가 하는것은 지금에잇서서는 아모러한 의미도 업습니다。웨그러냐하면 지금의 모드류행은 뉴-욕에 모혀가지고다시 여러가지로 연구되고 세련되여서 세계사교장에 전파되는것입니다。

이러한 류행은 불과두주일이못되여서 곳동경에 드러와서『아담』식의 양복그대로가 은좌통을 활보하고『아-드』식의 관을 박어낸듯한 스타일이 경마장에나타나는것을 봄답니다。

그런데 금년여름의 모-드는첫재 모양으로만 보더라도 체-쓰나 숄드라인이즐너그러워서 억개의 근육적인 남성미를 나타내고 징궁이나 떡볼이나 여러가지모양이잇습니다。

그리고 가을도 쟈-지후라노·그란·쇼·상크로-쓰등이잇습니다。

더구나 산이나 바다나모두다 여름을 찬미하는때이라 멋고플한것은 아예칠색이고 그대신 경쾌하고 청신한것이 환영될것은 정한리치가아님니까。

류별히 이여름의 서늘한맛을도읍는경향으로 회색빗 비단샤쓰에 순백색의 카라를 하는것은 대단히 씨크한취미입니다。넥타이는 거이불방울을 뿌린것가튼 둥그란문의가 잇습니다。

그리고 양말이나 샤쓰에가로줄간것이 만흔데 키가적고 몸이뚱뚱한 동양신사의게는 합부로 밧어드릴유행이 못됩니다。

작년에 유행한것으로 나포리탄스타일이라고해서 흰옷처고리에 회색 후란노쓰바지가 잇섯는데 그다지고급이되지못햇습니다。

그리고 흰조끼라고하면 명치시대의 낡은유물이라고할사람이잇지만 그건또 그러치안코 대단히 멋진것입니다。

짓흔색의 빨-비-치의아래우벌사이로 드러다보이는 순백색의 조끼 샤쓰는비단회색이고 칼라는 역시 순백색이면 그 희것과 흰것파의 대단히아름다운 콘비가 생겨서 중년신사의 세련된 취미를 표현하는것입니다。

염은차스빗의 카바진의징글노 단추세개짜리를 억개를 넓직이하고 소매부리를 좁게하고구두는 스포-츠형으로하고역시 차스빗과 흰빗의 야짬풀의에다가 여기에 말쑥한 넥타이,파나마모자─이것이 일반청년신사의 꼿쑹된 여름채림새가 될것입니다。

신적은것은 신찌마시요
원전신에해가옵니다
겁나는발의이상

손과 발을대고 봄대 누구나 손을중요하게시리 치겟지오만은 원몸을 하는동일 실발보다도 코 다니는만큼 발이라고 결코 허술히 보아버릴것은 못됩니다 두다리가 병신성스러운 사람은 얼마나 맵시가 안나고 꼴도 독마진가 그것발이라고 결코 허술히보아 버릴것은 못됩니다。발에 이상이잇는 사람은 다리를 울죽이는 것이 자연 보통과 다르고 다리가 보통과다르면 몸맵시가 나지안는것은 물론이요 건강에도 해롭게 되는것입니다

그런데 발의 이상이란 어려서부주의로 생기기쉽습니다 조그만 자녀를 기르시는 어머니네가 모름즉이 주의하서야 할 점입니다。

위선 발끄틀 안으로 오그려것는것을 안쭉다리라고하고 그반대로 발끄틀 박그로 향해것는것을 밧종다리라고하는데 두가지가 모두다 일종의 병신입니다 물론 그중의 얼마는 단순한 습관으로써 그러케 되기도 하지만은 그 대부분은 대개어떠한 고장으로해서 생기게 되는것입니다 본래 발이란것도 그다지 간단하게 된것이아니요 양쪽 합하야 스물여섯개의뼈가 잇서서 그대로 복잡하게 이루어저 잇습니다 그래서 그한개의 뼈만보통과 달러도 곳발에 이상이나타나게 되는것이랍니다。그러나 그쪽의 고장은 기게를 사용해서 고칠수 업지안습니다 닷지어려서 그것을 고처야지커서는 좀어렵습니다

×

그다음으로 안쪽다리나 밧종다리보담 소의편저족(扁平足)이라고하는 넙적이발은 그로인해서 발육이완전치 못하게 되고 정신이 불유쾌하게 되는등 미한편으로나 건강으로나 해가막대합니다。넙적이 발이란 무어냐하면 보통사람의 발은 대개중간이뜨게 되는것인데 그중간이 뜨지안는 것입니다。어린아이들은 이넙적이발때문에 안쪽다리까지되는 예가 적지안습니다。그것은 안이 허술한것가려서 그것을보호코자 무의식적으로 그러케 되는것일것입니다。그러나 어른들은 어린아이와반대로 넙적이발때문에 밧종다리가 되게됩니다。그것은 원봄의 무게를 박그로 실는이보답 안으로 실는것이 편리한 까닭인것입니다。

×

그런데 그 어떠한 발의 이상이고 대개는 어려서 적은보선이나 적은 구두를 신는데서 생긴다는것을 이저서는 안됩니다。미국 어느 학자가 미국의 아이들을 연구한결과 발이 정상적(正常的)으로된 아이는 백의 설흔도 못되는데 그 원인은 묘젓은 구두를 신긴 까닭이라고합니다。적은 구두를 신기는 이외에도 어려서 스켓을 하는것,자전거를 타는것 따쓰를 만히 하는것등이 모두 재미엽습니다。그래 맨발로 모래바티나 진흙바를 걷는것은 오히려 조하도 단단한 아스팔트나 페브멘트를 걷는것은 딱색이랍니다。

長篇小說 愚氓 【49】
朴泰遠 作 洪祐伯 畫

長壽山行 (一)

선천온천서 그날밤만 지내고 이튼날은 아침 일찌기 안악으로 떠날 작정이엿던것이 새벽에 눈을 떠보니 밤새도록 오는 비가 그저 끈히지안코 나린다。한수는 자리속에서 선하품을 한번 하고,

(오늘도 예서 하로를 또보내나?)

하기야 긴한 볼일이라도 잇서 나선것이 아니요,최건영이 그러케도 놀러오라고 두번 세번씩 편지를 하여 그럼 어디 가서 장수산에나 올러가 볼까 하고 서울을 떠나온터이다。비가 오면 오는대로 사흘이고 닷세고 그냥 온천서 묵는것도 해로울건 업다─하고,한수는 머리맛 창밧게 줄기차게 나리는 빗줄기를 별로 우울하게는 바라보지 안헛다。

허지만 물론 이러케 비가올줄 알엇더면,물론 며칠 더잇다가 정말 나서는것이엿다。일학기 엄시시험이 넘모레 시작이 된대서 요사이 머리를 싸매고 찡찡 앓는 차문탑이를그대로 남겨 두고 떠나온 것이 이러케 되고 보니 한수는 다음에 안되엿다 아모런 볼일도 업시 한수가 그냥 놀러 나서는것이라 알엇슬때,차문탑이는 분명히 원망스러운 얼굴을 하여 가지고

「그,좀 천천히 가면 어때? 남 또 낙제 시키지 말구 며칠 들어앉저 가르쳐달라 ......」

몇번인가 간절히 청을 하던것이나 한수는 그말을 들어줄수가 업섯다 볼내 두번이나 최건영이 편지를 보낸것에 답장도 못하고 잇섯던터에 그께 나제 또 독촉을 바덧다 아수 안간다면 모르거니와 차피 갈바에는 곳 떠나는것이 조흘께다。더구나 올봄에는 마음이 도무지 내키지 안허 창경원으로 야앵(夜櫻)구경 한번 안갓던그다。어데 시외로 산보나 나가자고 몃번인가 차문탑이가 말을내여 보앗서도 그는 쫏지안헛다。그러던차에 안악으로부터 세번째 편지다。

(글세그러구경을 나서볼까?)

하고 문득생각을하니 갑자기 울려날 마음이 불일듯하여 설혹차문탑이가 정령코 낙제를한다는 한이 잇더라도 방속에가 그대로들어안저 대수기하(代數幾何)를풀어주고 물리화학(物理化學)을 가르처주고 그럴생각이업섯다。

(그래도 이러케 비를맛날줄알엇더면 한이틀보아줄걸 그랫나?)

허지만 원악이 실력이 업는 차문탑이가 턱에 다서 하는공부를 자기가 여페서 보아 준댓자,별수가 잇슬던시 업스리라고──한수가 다시 한번 선하품을 하려니까,창밧 비오는 [illegible] 장연가는 차가 달린다。머리마테 시게를 집어보니 일곱시 사십분이다。

변소를 다녀서 온천에를 들어갓다 나오니 그사이에 방을 치고단『조쭈-』가 장시아페가 단정히 무릅을 꿀코 아침상을 들여오리까,뭇는다。곳 가저오라 하고,학수는 문득 어인까닭도 업시 강씨를 생각해 내엿다。

류녕옥의 말을 들으면 강씨의 속병은 좀처럼 나올것이 못되여,그사이에 두어번 서울에 도라온 일은 잇서도대개는 신천온천서 살다 시피한다니까 어쩌면 지금도 그때나 마찬가지로 동아려판 이호실에서 혼자 외롭게 지날지 모르는 일이다。그동아려판이라는데가 음식이 마땅치 안코 또단잡하여서 그래 이번에는 안려거꾸에게 물어 이 『기꾸다로깐』이라는 집으로 들어 온게지만 물론 동아려판은 예서도 가까울것이다。그 려관에서 한날 한시에 최건영과 류명옥과 또 강씨타는이와 더부러 서로 안것이라 생각하면 어쩐지 이꼿까지 와서 그냥 지나처 버리기 어려운 느낌도 잇섯스나 그러타고 일부러 그곳까지 가서 강씨가 그서 잇나 업나알어볼 생각까지는 나지 안헛다

말업시 밥을 떠너흐며 문득

(최건영이 가르면 열일 제치고 가볼걸?)

하고 생각을 하니까 가만한웃음이 입가에 떠오르는것이지만

(나,오기를 그처럼 고대하는터이니,오늘은 비때에 못가더라도 예까지 와다는거나 알려 노흘까?)

언젠가 그의 집에 전화가 잇다던 말을 생각해내고 그는아차상을 물리자곳『조쭈』의 안내로 전화실로 갓다。

안악 최인화(崔仁華)의 전화번호는 곳 알수잇섯다。최인화라는것이 바로 최건영 얼른진네의 이름인것은 들어 알고 잇는터이다。

그러나 전화가 걸린곳은 최씨의 집이아니엿다。

번호가 틀렸나 하고 다시 번호책을 드려다 보고 일어보니 번호는 옳게 맛는다。어인일일까?──하고 수화기를 든채,잠간 의아하여 하려니까 저편에서 일러수는 말이 원래 그전화가 최씨집것이엿스나 월전에 자기집에서 산다고──그러나 한이웃이니까 대여주기는하마고 한다

학수는 최건영이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전화를 팔엇다니 그럴 최씨집안도 근래 그다지는 유족하지 못한것인가?──막연히 그러한것을 생각하엿다

學藝

知識階級論 【四】

現世에對한理解와愛着 知性과反知性의現實

白鐵

오늘날 어面轉換現實앞에서知識人을 어 苦悶을하고잇는가하는 理由는 누구나 大槪적작하고잇는事實이다. 말하면 今日은 政治와 行爲의時代肉體와肉體가서로부닥처서

一時一 다 運命을決하는 現實이 이行爲的인現實

이潮流와가티 드러밀리는때에잇서知識人만은 그潮流와 떠나서잇다. 물론은 孤島와가티 知識人의 여울을 通過해가는것이다 여기에 現實과知識人사이에 莫大한距離가잇다.

아무리 時代가 行爲的이때라도 그時代와 境遇에 따라서는 知識人이 理論的으로는 勿論行爲에 잇서도 先頭에서 指導的인部署를 차지하는때가만다. 그러나 이번의現實에 잇서는 너무나意外의 揚面인 때문인까 知識人은미처 그現實에 應하지못하고 물네거름을치고 傍觀的인 態度를지키고잇다. 그行爲의 現實에 比하야 知識人이 넘어 無力해보이는것은 그때문이다 그러나 直要한것은 知識人이 물네거름을치면 칠사록 現實은 知識人을 追求하야 無力한 態度를 非難하며

一急一 激한 行動的 立場에서知識人에게政治的인態度를 强要하는事實이다.

나는 近間에 어떤雜誌中에서 新潮로서「知識階級에게보냄」이라는冊子를 興味잇게 읽어본일잇다. 그것은 今日의 東洋的現實을代表하고잇는 爲政的인 立場에서 知識階級을 論難한것으로 우리 知識人이 直面한 現實의 意味에서 생각되는것이 잇섯다. 무엇보다도 그中佐가 知識人에게 對하야 知識偏重, 主知主義의 過誤를 指摘하야 知識人이 自己를 再反省하는 機會를가지게한것은 分明히 이潮流의 基準이엇다. 그러나 中佐의 論文內容의 主張은 亦是 知識階級에게 보내면서 知性에對하야는 아무理解도업시 主義를 强制로 知識人에게 勸한것이엇다. 그가主로論한것은 知識人이 國家的인것, 民族統一의 擁護의 意味에 知識的理解가업다는것, 나가서 知識人의 문제를 地方的인 信仰과睦話的인 情熱로 끌고갓던까닭이다

一事一 여기서 나는今日의 指定된現實, 또는 그爲政者의 見解를 代表해서 知識을 論難하는 實에對하야 어떠한 論을내리우려는것이 아니다. 나에게 필요잇는것은 今日의 現實은 東洋에대한 커다란 轉換의 意味로서理解코저하는 必要가잇기때문이다

어디까지나 知性의 立場에서 現實의 意味를 理解할 必要가 잇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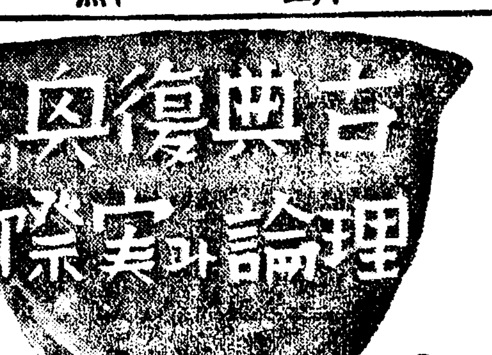
勿論 現實이라고하지만 以上에말한 現實은 여기知識人이 直面한것이오아닐는지모른다. 말하면 東京의知識人과 이땅의知識人이 現實에대하는태도와 意味에는커다란 距離가잇는것이다.

여기서 東京의 知識人이 取하는태도를 우리들이 그대로取할수도업고 또取하지도 안는다 그와가티지금까지 우리知識人이 大體는 東京知識人의 態度를追隨하는것이 여기서만은 그대로 될수업는곳에 여기의

一知一 識人이더한층 彷徨하고混亂하는意味가잇는것이다. 여기의 知識人이그와 가튼 意味로 그現實에 參加해 잇다고 나는 보지안는다. 東京知識人과 여기知識人사이에는그만한 地方的距離가 지고잇는것이다. 그것은 勿論 다만 여기의 知識人의 地方的인 感情과 心理의 差異때문에 東京人파가 다른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생각할것은 今日여기의 知識人이 東京의 知識人과 行爲를 가치할수업는 오늘의 限界를 가지고잇는것이아니고 亦是 우리들에도 나름의 道를 追하야 오는 그現實에 對하야 그最高價値를 어떠케 살녀갈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知識人은 어데 立場을 둘것인가를 理解하는것이 必要하다.

一知一 性의 眞實한 意味와 知性의 方向을 ... 나『歷史의理性』에 依하야 理解하고잇는것이다. 언제나 우리들이 最近東京知識人의 動向에 對하야 지금까지 그 해도이 아무리 知性을 ...



歷史의轉換과古典復興

새로운創造와建設을위하야

朴鍾鴻

우리네가 歷史에잇서서 特히 轉換을말한다면 그것은 順調로운有機的發展으로서의 變遷을생각는것도아니오 過去의傳統的慣性에이끌리어 輪轉되는 한慣習的反復을意味하는 것도 아닐것이다.

安逸 必然的으로徹出되는 自己疏外라는矛盾된現象이 從前의殼을逃避하야 飛躍的文化의固定化로부터 守할수업게된다는 곳에 飛躍的인 非連續的轉換을 보게되는理由가잇다. 여기에渴望되는것은 새로운地平의展開 새로운原理의把握 그러나旣成的規範으로 헤아릴수잇는 過去의自然生長的이擴大나 延長이아닌지라 아프로닥처드는 것은 因襲的傳統으로부터 斷絶된不安 安定된地盤의 喪失로할미아마이러나는 空虛感이요 未來에對한焦燥로 마음을 태이는 靜寂과 誠實이 오히려 앗질한 絶望에 사로잡히기쉬운時代이다

이러한때에 古典이問題됨은 무슨까닭인가. 一見 矛盾된現象이나아닐까. 더욱 外來의文化가 어느程度까지 內面的으로消化도 되기前에 性急한形式的追從에만 汲汲하던 이땅의特殊事情은 다시금世界的인 이轉換에臨하야 더一層錯雜한情況속에서 헤매게된것도갓다. 그러타고해서 그成果조차

豫測 키힘든 緊張으로부터 차라리 逃脫하야 一時的安逸이나마貪하기爲하야서의 懷古的自慰가古典의復興이라는 美名을假裝하고나타난것도아닐줄하다. 骨董的趣味로서의 蒐集과整理가가지고잇는 消極的意義마자 無視할것이아니나 그閑漫한退嬰的態度가우리의 問題가지니고잇는緊迫한實踐性과는 因緣이멀어보인다. 無氣力한 退屈을 無謝하야 當然한事인듯이 꾸미려는것도아니오 마치典型的인模像의理想鄕을 古代에서 다시금차자보려고하는 好古癖을이루도아니다.

古典이 因襲的傳統이나 骨董品과달라 노프는價値를밧는所以는 언제나 그生生한根源性에잇다. 潑溂한生의 根源에서 용소슴치는 迫力이그自身永遠히 새롭기때문이다 本然的인人間性이새로운『티푸스』에잇서서俱體化함을보이기때문이다 形式的變轉을버서나 創造와 새로운建設을爲하야 씩씩하게자온 그들의『오리지날』한意氣가오히려現代人의

心情 에 共鳴되는 바잇기 때문이다. 如何 애것이면서도 가장 새로울수잇고 먼곳이면서도 가장가까울수잇다는것이 古典이가진바 特性이아닐수업는것이오 이와가티하야 歷史에잇서서劃期的인最高峰으로부터 最高峰으로 飛躍的斷絶을넘어 새로운 連結을 짓게되는것이 곳 古典復興의現象으로나타나는 歷史的事實일것이다. 우리는 이미지나가버린過去로 도라가려고 空然히 허덕이는것이아니라 우리의未來에對한情熱이 過去로하야금 이瞬間에잇서서 甦生케하는것이오 過去의意味가 未來에對한 決意를 通하야 刻刻으로 새로운힘으로 새로운運命을걸머지고 緊張된現在의 언지못할 一契機로서 登場하는것이다. 우리는 이러한意味에잇서서 비로소 참된過去를 把握할수잇는 것이다. 아니 現在에잇서서 過去를把握할수잇는것이다. 그러타고 古典은마치 無條件하고 뚜드리기만하면 黃金이 저절로쏘다저나오는 방맹이도아니오 用之不竭하는 靈泉의

魔術 水源地도아니다. 古典이 古典으로서 나타날때에는 벌써 그時代精神이客觀化된것이오 『로고스』化라는 固定된形式을가지고 나오것임을 忘却하야서는 안된다. 그時代와의 關聯에잇서서 全體的洞察을疎忽히하고 한갓 枝葉的字句에 拘泥하야 類似한外形만을 들추어오로지自己主張의 强調와 權威로부치기爲하야서의 한낫手段으로 濫用한다면 그야말로 古典에對한 혁된信賴라기보다도 차라리 一種의 侮辱이 아닐수업다. 古典을單只『로고스』化된次元에서 考證的解釋에 그친다면 그것은訓詁學者나 文獻學者의 學究的趣味에 一任하야도 無妨한일이다. 一層高次의 立場에서새로운 意味에잇서서 다시 살려내여 止揚攝取하는곳에 古典復興의 本義가 잇슬것이다.

因襲的傳統을 一擧에 斷絶함은 무서운일이다. 目前의安逸을 偸하는 怯者의卑怯을 그는구나 敢히 버리고 가젓스랴마는 이러한態度는 다시금 의 魔力에 휩쓸리

傳統 어 傳統과더부러 가티하게 될뿐이오 未來에對한 情熱과誠實이 굿세이하게 못갓내 일치안는 傳統과 싸와가며 絶對의 否定을 媒介로하야 도로혀 참된 過去의生命을 살리며 傳承을 確保하는것이다. 참말로 時代의尖端에서 勇敢히 싸우는것은 오히려 眞正한古典의 復興도 可能케한다는 矛盾의眞理가 비로소 歷史轉換의 推進力인것을 또한새각지아니할수업다 (키르는 新羅時代의殘蹟임)

鄕歌解疑 (二)

田蒙秀

惡寸 懺悔業障歌와普賢十願歌에『惡寸』이란鄕語가 잇다. 이는 어떠게 읽을것인까. 小倉博士는 이를『모딘』이라 解하엿다(前揭書八三頁). 『모딘』도 勿論『惡』의 訓의 하나이지만 이外에 우리는『궂』·『사오납』·『아쳗』·『믭』『멎』等이 또잇엇음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要는『惡』의 諸訓中에서 어느 境遇에 어느것을 取할것인가가 問題이다.

『惡』 모딜모 (字會 下 二六)

(月印釋譜 二의一四)

내아두리비록 모디라도『사오나오』쎠 (同 一의五)

江湖 ... 마쫏지븨서로잇버드릴아숌고 (杜詩諺解 八의三九)

놈의봄르들 (月印釋譜 二의六四)

上例에서 보는바와가티『모딘』은『凶惡』의『惡』의 義로『順』에 對한 말이요『궂』은『凶』에對한 말이다『사오납』은『兇惡』의『惡』의 義로『아천』은『嫌惡』의『惡』의 義로『好』에 對한 말이요『믭』은 旣知하는 바와같이『憎惡』의『惡』의 義로『愛』에對한말이것이다. 모두『惡』全體를 指稱한 말이 아니요 各各 그 一端을 表한것임에 不過하다.

『惡』에對한『惡』의 概念一般가만히 생각하여 보건대『暴』이라던가『凶』『嫌』『僧』의 語가 아니요『善』을 가라치는 말은 正히『멎』이 아니면 아니될것이다.

寂滅은 사도아니하며 죽도아니호씨니 衆生은 煩惱로 뭍 쓰러브러 이리이실써 됴호일이 순 因緣으로 後生애 됴호몸 ... (月印釋譜 一의一六)

後生애머즌몸 ... 落하야 그지업시罪苦를受하거니와 부텨는죽사리업스실써寂滅이슬거다하시니라 (月印釋譜 二의一六)

鄕歌에 쓰인『惡寸』의 義를 未普『머즌』이라 읽고저한다. 이와가티『惡』字를 借用함이 常例이데 이『寸』은 古音이『즌』의 近似音이었던 까닭일것이다. 現音『촌』인『村』、『忖』等은 和音에 ソン이며『寸』만은 スン이니 이의確實함을 證함에 足하지 않은가.

脚烏伊 處容歌에 脚烏伊四是良羅 란 句가 잇다. 小倉博士는 이『脚烏伊』를 어떻게 읽엇는가. 『脚』은『다리』인데 鄕歌『脚烏伊』의『脚』을『가롤』이라 하엿다. 『가롤』이『脚』에 對한 當時의 말이 어떠지도 모르나 나는 아직 文獻上에서 이말을 發見치 못하엿다. 이말을 普通으로 여긴다 ...

新人詩叢

順伊와나와

張萬榮

푸른잔듸를깔고
順伊와 나란히 안젓다

順伊에 억개로 나에팔이 올흐다
나에 억개로 順伊에 팔이 올흐다

順伊 너는 내가 좃흐냐?

順伊에 눈이 水晶처럼 맑어진다
順伊에 얼골이 나의가슴을 파고든다

솔바람이 바다처럼 서원스런
언덕
봄

順伊와나는
먼 山脈을 처럼 고요한 來日을 생각하며
幸福하다.

漢詩募集

題 蓮花　押 春　限 六月十日

漢詩

題 梨花　押 香　桐岡考選

佳作之八

平北道義州郡枇峴面香嵐洞 張正立

錦葩明潔異凡芳・可作千花譜裏長・近院樓臺欺夜月・暎柯窓戶壓晨光・奇景園林飛白雪・大觀玉樹散淸香・一枝帶雨春風立・洽似仙宮破睡楊

佳作之九

濟州島와民謠 (上)

第四班 濟州島行 (五)

方鍾鉉

濟州島야말로 참으로 民謠의 나라이다 마랫노래라고하야 방애찌흘때에 부르는노래도 잇고 바다우에 배를 띄워노코서 허가며 노에 마추와서 부르는 뱃노래도 잇스며 들에서 김을맬때에 그힘들고괴로움을 조곰이라도 더러볼가하야 이고랑에서 메이고 저고랑에서 밧는 農夫歌도 잇다

그러나 그도 그뿐일까시 어머니는 시어머니대루 또 며느리는 며느리대루 말못할 속셤온사정을 하소하는 人情의 노래도 잇으며 또 밤이며 나즈로 보고지고기 다려지는 相思의 戀歌도가 지가지가 잇다

그中 이섬의 노래가운데서 가장 代表되고 特徵을 나타내는것은『이허도』或은『이어도』의 노래가 첫재일 것이다 이제그 두節을 들어보면 아래와가다

이어도하라 어어도하라
이어이어 이어도하라
이어홍민 나눈물난다
이어말난 말아근가라
【註 마라근―말고서】

이어도하라 이어도하라
이어이어 이어도하라
江南가건 해남을보라
이어도가 반이라한다

이와가치 이어도가 놀부러다니니 그러면 어 어 도라는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한傳說의 섬이니 離虛島라고까지 쓰는사람이 잇서서 本島와 支那와의사이에 位置를두는 섬이지마는 本島에서는 떠먼곳에 잇스므로 보이지도안코 또일즉 한사람도 가본일이라고는 업는그런 神秘스럽고 虛無한 傳說의 섬으로 알아오는이가 만타 그리하야 이島女를 은근가 사랑하는 男便이 支那에貨物을 싯고한번 배를 라고 바다로 나간後에는 한번도 그배가 다시 돌아오는일은업섯다고하니 이女子들이 얼마나 이離虛島가 원망스러웟스랴

그러므로 上記한 노래의 第一節에

이어홍민 나눈물난다
이어말난 말아근가라

이라고하며 이第二節에

강남가건 해남을보라
이어도가 반이라한다

라고한것이 離虛島의 位置를말한것이라고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들이 뿌리뻔인 이傳說을 全然히 否認하려는것보담은 이들의노래에서 보게되는 이말의語原을 보아서도 物件을 相對로 한것을 보아서 이것이 離虛島라고하는것을 말함이 아니고 一種 興을 돕는 役割을하는部分이 아닌가고 생각된다는것을 附加하고저하는데 지나지 안는다

逝往錄 (下)

一懷:友:隨:筆一 (二)

鄭芝溶

『善人과 善人의 사이가 아니면 友誼가 잇을수업다』―사세로―

내가 어찌 敢히 善人의 짝이 될수 잇엇으랴. 『惡人도 때로는 嗜好를가리할수잇고 恐怖를 가릴수 잇는것을 보아오는바이나 그러나 善人과善人사이의 友誼라고 일컷는데는 惡人과 惡人사이에서는明言 어다―시세로―

내가 스사로 善人인것을 告白할수도 업다. 스사로 惡人인것을 늑이고 苦悶한것은 그것은 善人의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일이란 하찮것 업는것이요 또한 허란한것임으로 우리는 사랑하고 서로求하게 생각한다. 언제 그 연고로 除去하여 버리면 무릇 喜悅이 人生에서 除去되고 말음이다 ―시세로―)

어 論法으로 써 내自身을 裝飾하기에 熱賤치 아니하겟다. 이 裝飾에서도 내가 除去된다면 대체 나는 어느 헌두덕이를 끌라입으란 말이냐!

(그의 德이 友誼를 나코 또한 지행하는도다. 그리하야 德이 업스면 友誼가 存在할수 업스니, 友人을 和合시키고 또한 保存하는 바시자는 德인저! 德인저! ―세네카―)

故人이 세상에 적어 잇슬때 그의 德을 그에게를리지 못하엿거나 이제 이것을 헌조하야 옮기려한기도 술프일어 아닐수 업다.

故人의 訃音을 들어낸 人士들을 맛날때마다 나는故人의 兄弟나 近親이 바더야 할만한 弔慰의 말슴을 들엇던것이다. 그의遺骸를 조곰도 멀지 못하엿고 友誼에 忠實치 못하엿슴에도 故人의 知友가 그를 아까워할때에 내가 그와 함끠 記憶되어짐을 생각하니 두려운 일이다. 한편으로는 欲詐로 裝든 누림수 잇스나 오즉 善人에게만 許諾되엇던 友誼에 내가 十年을 包容되어온것을 께시 자랑스럽다. 나의 生涯에 이 돌을 동안에 나는 한일이 업섯던것이로구나―

지즐 곳에 숨어 보지 안하노니 노픈 가지에 소리 흩연 새 맑워다.

花密藏難見
枝高聽轉新
―杜甫―

벗이 어데서 저다지 술프고 맑은 소리를 울어 보내는것인가. 벗이어 우는 철 내가 서려 세상에서 다시 三十生涯를 되풀리한다 할지라도 벗이여 술프소리로 해일수 밧게 업지 아니하랴! 아 애닯을지고! 故人은 願 어 소리와 香氣를 끼치고 가는도다. (끝)

本報當選作家短篇리레―

岐路 (五)

金廷漢作　崔根培畵

이튼날부터 두보는 수도서수저공사장에 일을 나갓다. 먼동트는자 도배기를에 세수를하고 해돗기전에 집을 나서도 울라리속 참새소리가 쇠다 끈허진 뒤라야만 터덕터덕 집으로 돌아왓다.

그리케 하결 열흘이 못가서 두보의 맑앗든 호흡이바지가압 전정점이 어느새 사뭇 헤여지고 다라진 실장갑 끄트머리에는게 발톱처럼 열손꾸락이 쑥쑥내다본다.

동지가 갓가워올수록 두메의 해는 더욱 짧어저서 두보는연방 늦게돌아와다. 업는 거리로서 그래도 남편의 입에맛도록 맘은 정성것 차려둔 끼니가 혹은 잠이 나갈가봐서 은파는 짜정 맘을 조려거리면서 그가 돌아오기를 기대렷다.

그러나 두보는 안해의 그러한 마음차림을 말한마듸로서도 아는자근이 위로하는 법이업시 그저 밥상을 물리기가 밥브게 그자리에서 뒤로 훨훨두러누으면 떠꺼치 가리된 사지를큰대자로 적―펴러노코는 어서얼만저 달라고 이건또 첫먹이보다 더 급하게 졸라댄다.

은파는 속살론 적이 앵한생각이 들지만 제맘 몰라준다고서 설혹 벌름해보닷자 별로이 신통한 대접도 못바들지라 코저 잠자코 억개쩜보터 팔다리 발끗까지를 내려꼭 주물러 준다―얼만저준다.

그래도 두보는 한에 못차서

『좀더 힘을 너어서 만저봐』

『누굴 소고길 사먹엿소? 남은 아주영장사줄 아는가보우』

은파가 실라면

『소고긴 못먹어도 밋죽은 안 먹엇지 그래?』

『그럼 강보리밥 기운이라도 내 볼까요!』

하고 허벅살점을 콕―꼬집어 놀랏치면,

『잇떠떠따…… 그리지말고 인젠 살금살금 두다려줘.』

그러나 또 아무리 쌍다디미 질을 해줘도, 좀더 좀더세게 하곤 좋은다.

『그래도 아그잔허요?』

『그럼 더 세게처!』

『아주 그만 송장이 돼구먼요 내손이 아퍼서 안되겟서요』

『그럼 또 방망이라도 가저와』

『또 방망일―?』

『옹.』

『정말?』

『옹.』

결국 빨래방망이가 들어와야만 된다.

그러나 처음에 말하던『위선얼마동안』이란것이 대체 얼마동안인지, 두보는 좀처럼 십장이 되집안혀다. 되려 일만더거북해지고, 따라서 사람만더 축이낫다.

그러라고 삭된이나 나오나하면 그도 맘대로 안되고 오히려 시국이 시국이라고 이것저것 때 ... 볼일 당처저 발바디까지를 배대한 축이는것만 늘어나갓다.

그리하야 그는 차차 막버리꾼답게 성실까지 거칠어젓다. 갈금 이기지도못하는 소주잔도 결치고 간혹 그러한 동무들도 더리고와선 괜히 은파를 괴롭게하엿다.

물론 만식이도 자조 놀러왓다. 그는 올때마다 반듯이 과자부스레기라도사오고 은파를 위로하기를 잇지안햇다. 한번은 두보가 업슬때 왓다가

『미첬 업는 살림이 돼서 용색한 점이만흐실테지오? 혹급하실땐 조금도 어렵게 여기지 마시고 제게 살짝 말해줘요.』

서……』 두봄 청성이 애여 남에게 머리숙이는걸 실허하는 편이 돼 하곤 은파의 처지를 처음이 세엿다.

가 퍽으나 딱해서다. 고향을떠날때 기생된불로잇는 늙은 눈단이어머니의 덩덕궁의 소출을서넘문 긁어오긴 해지만 그까진것 몇칠 보태여 쓸것도 업고 연방더 살기가 거북햇다 그러나 그는 아무리 딱한 엉외라이라도 그러말은 나오질안헛다.

부득이 갓논날만 기대려 일남이를 등에 매달고 남편의점푤을 손에 들고서 시간이 되기전부터 손두사무소아를 차자갓다. 거기서 그는 추어서 보채는 애기를 업은양으로 얼우면서『시마이종』이 울기를 바란다.

그럴때 그는 만식이는 더말할것도 업고 혹 얼굴아는 사람이 지나가면 의례나를 붉히면서 외면을 한다.

남의 그런 속도 몰라보고 한번은 이웃에 사는 개똥이란놈이 말을 걸엇다.

『치, 치운데 바, 벌써 왓소? 시마이종칠때 아, 아, 아직 갈엇소.』

개똥어머니의 천치비슷한 외아들이다.

은파는 대답대신 열적게 우서만 보엿다. 그러나 억개가 내려안도록 자갈을 질머지고 어둔하 다리를 어기적거리는 그의 뒷꼴을 한참이나 바라다보앗다.

개똥이가제 일저수지쫌으로언덕길을 올라가랴 때엿다. 집은 거북하고 다린 왈왈 떨려서 어쩔줄을 모르는듯시 잠간 얼음어름하고 잇스니깐 저만큼 섯든 만식이가 마러 급한 자리를 도아수기나 하려는듯시 얼른 달려오드니만 웬걸 집고잇든 삭대기를서 되려 개똥이의 엉덩이짝을 콕―질려준다.

『어, 어―ㅣ!』

하며 개똥이는 자갈과 함께 아프로 납작하게 끈두바이를 첫다.

하마트면 은파는 그리로 달려갈번 햇다.

『이러나 이자식! 사흠에 펏죽 한술도 못처먹엇니?』

만식이는 구두신은 밝을 그저 들어들어햇다.

[illegible]藝術堅戰

第二回 全朝鮮男女音樂콩쿨

一開催期日……九月中旬　一申請期日……九月五日

一曲　目……二曲을演奏하되 一曲은本會指定曲을取하고 一曲은隨意로함

【聲　樂】(1) Der Wanderer(放浪者)=슈벨트　(2) Ave Maria (아베·마리아)=슈벨트

【피아노】 Impromptu (即興曲) No. 4 (作曲九〇) =슈벨트

【바이올린】 Concerto (協奏曲) No. 8 (B Flat) 一樂章=로―데

【譜　表】 本社事業部에서實費로配布함

一參加資格……全朝鮮男女로하되 聲樂은滿十五歲以上

一申請規定……申請金二圓과伴奏料一圓을申請書와함께本社事業部로交附함 (但申請後에는申請金을一切返還치아니함)

一褒　賞……入賞된분에게는本會로부터콩쿨賞을授與함

一審查委員……金永煥·洪蘭坡·朴慶浩·玄濟明·桂貞植·金元福·鄭勳謨·朴泰俊·李寅善·金載勳 (無順)

主催 朝鮮日報社

新刊紹介

◆醫藥知識　第四輯 發行所 京城府鐘路一丁目八七 京城藥學研究會 振替京城八三六七番 定價二十錢

◆佛教時報　第三十五號(月刊) 發行所京城府鐘路町五의三七 佛教時報社 振替京城二三六四三番 定價一部十錢

◆基督教報　第一六二號(週刊) 發行所 京城府西大門町二丁目八九 基督教報社 振替京城二一五九〇番 定價一部六錢

◆藝術科　六月號 發行所 東京市本鄕區金助町三八 日本大學藝術科 定價二十錢

◆朝鮮山林會報　五月號 發行所 朝鮮總督府農林局內 朝鮮山林會 振替京城九六八二番 定價三十錢 送料一錢

◆十字架　五月號 發行所 京城府新堂町二四七의一八四 十字架社 振替京城一七五〇九番 定價一部 六錢

◆佛教　六月號 京城府壽松町四四 佛教社 振替京城五四八二

붓치면곳낫는

마―푸라스타―

뜨거운해ㅅ빛에 푸른나무입새귀를 번쩍이는 여름날에 진땀이 흐르도록 고통을주는 신경통·류―마지스·견비중·두통·치통·타복상에 本劑를붙이시면 그렇게심하든고통도 곧개이고 상쾌한거분에 곧돌며 순시간에 병고에서버서나시게하여줍니다

그것은 本劑만이가지고잇는 獨特한藥效이니 한번患部에붙이시면 二十四時間이나두고 持續的으로 藥效가發揮되야 약기운은 조직심부에침투되며 세포조직을갱신식히고 피의순환을 왕성케하야 속속드리뿌리박힌 病禍根을다스려주어서 根本的으로낫는약입니다 더구나 조끔도副作用과習慣性이되는법이없이 어느곳에붙이시고도 自由로기거동작을할수잇으며 깨끗한白色의 반창고식의약임으로 보매도 흉치않읍니다

신경통 류―마지스 두통 치통 삔인곳에 乳腺炎 근육통등에 특효한약입니다

發賣元 大木合名會社 東京神田鍛冶町 振替東京五四〇

廿錢 卅錢 卆錢 一圓　全道藥房에잇읍니다　시용약을 약방과本舖에서진정합

東洋劇場 朝鮮新舞臺公演 六月四日밤부터 上演豫題―李雲芳作 「사나희사랑」三幕 ◇主題歌◇아프고쓰린사랑엇지하나 「流行性感冒」一幕二場 ◇上演名劇◇李瑞求作 「어머니의힘」三幕五場 名優 黃澈作 「아우의詐欺」一幕

黃金座 日活 京日·朝日·バ社ニュース テンプルちやんの上海脫出 加賀百萬石 11·10 2·40 6·40 / 11·30 3·00 7·00 / 1·00 4·30 8·25 / 1·15 4·45 8·30 六月六日ヨリ

第一劇場 時代名畫 夜襲本能寺 現代名畫 泣かせてね 名畫 テムプルの愛國者 大衆料金 六月六日부터 一週間大公開 電話光一七五五

若草劇 六月七日ヨリ三日間 母大地 朝日新聞 毎日新聞 懸賞當選 大會 6·00 1·20 / 7·20 2·40 / 8·40 4·00 11·30 / 9·00 4·20 11·50 五〇錢均一

優美館 日本一の岡ツ引 青春ホテル 松永靈徹氏心靈術公演 團十郎の勝 天津龍太郎氏主演 電話光三九五

中央館 永樂町 魔人幽靈塔 第一篇 讀賣ニユース 空中劇場 元祿からくり帖 三日ヨリ六日マデ 每日晝夜二回興行 電話本二〇一四

事變下의 우리小工業 ⑤

疲弊하여가는 우리油菓業은? 아직도傳統을자랑!

京鄕을勿論하고 아직도 婚姻讌宴의 飮食床이나 祭物等에는 油菓를大量으로 사용하게 새로운 菓子며 藥菓, 산자, 강정等을 보게된다. 더욱이 新式으로한 結婚式披露宴가튼데도 亦是이것들이 업는 곳이업는것을보면 새로운것을追從하려는一方 옛것을노치못하는 一面을엿볼수잇다 서울에도 東大門市場이나 南大門市場에를가면 油菓店을 만히볼수잇는데 油菓店이라고 油菓의各種을 各店에서 모두製造販賣하는것이아니라 藥菓면 藥菓만 自己네가만드러팔고 其外것은 다른곳에서 사다가具備해노코판다고한다 그것은 漸次로需要가 減少되여가는關係上 여러가지를 各各少量으로 製造하는것은費用이만히드니까 한가지식 專門的으로製造하야 有無相通의形式을取하야 買入販賣하는것이라 생각된다 아모리 因襲과傳統의힘이强하야 自己네의 風俗을 사랑한다고해도 世代가變遷하야가는때는 어쩔수 업는지 [illegible] 油菓도 [illegible] 需要는 減少되어 [illegible] 市場에서 다른

[illegible] 지아라고한다 그러나 [illegible] 物산이에 [illegible] 傳統을 자랑하며 문허저가는 집을 부여안고 精進하고잇는 油菓店이 [illegible] 其中李王家에도 用達하고잇다는 朝鮮油菓商店을차젓다 [illegible] 이란할수업시 오랜모양으로 [illegible]에서도 約一尺가량이러서 여리를굽히구야 드러가게되엿는데 나재도 [illegible] 을켜노코야 作業을하리만치 外部光線이 드러오지못하는데 [illegible] 은면와집든자리나되는지 넓은廚房에 하나마닭어다서 밝은데잇다가 드러간사람은 咫尺을 分別할수업스리만치어둡고 [illegible]한데 主人은 귀가어두어서 말을잘通하지못한다고하야 일하는 늙은老人을불러고 몃마디 물어보앗다 강정이나 藥菓를勿論하고 婚姻이나 祭享等其用途가 極히制限된것인만치 注文이나잇서야 製造하고 店舖에 조금準備해두는程度이나 比較的다른油菓店보다는 여러가지 種類를製造한다고 하는바 老人은 지금藥菓를만들고 잇는 모양갓기에 藥菓만드는 이얘기를 [illegible] 를 [illegible] 고 [illegible] 한 방을 [illegible] 여 [illegible] 로 花形을만드러 기름에다 지진다고한다 이러다를 殺菓는 아무것도업고 作業도 [illegible] 多樣한것이아니고 [illegible] 하고 [illegible]한것이므로 [illegible] 女子도 充分히 할수잇는것이다 注文이 잇스면 만들고 업스면 休業하는 狀態이므로 固定職工은 [illegible] 女子가二人 男職工一人 合하야 三人이잇슬뿐이나 注文의 分量이多量에達하면 臨時職人을 採用하는일도 잇다고한다 이油菓는 [illegible] 時節에關係가만허서婚姻이만흔 春秋는 그리쉬는날이 만치안흐나 더운여름에는 거어 休業狀態라한다 如斯한 現狀이므로 資本이나 技術로보아서는 누구나 容易히 經營할수잇는것이나 아프로 需要가 減少될傾向이고 增加될 所望은 보이지 안흠므로 新設은 可能性이 薄弱하고 이미 오래前부터 經營해오든곳들이나 겨우 現狀維持에努力을 要하는程度라한다

(K記者訪問記)

"朝鮮米格下는 全然問題안된다" 影澤全北農務課長談

每年一千萬石內外를 內地에移出하고잇는 朝鮮米를 大宣傳키爲하야 下飯坂總督府米穀課長, 伊東技師, 山本總督府穀物檢査所長, 影澤全北, 上浦忠南兩農務課長及 關係各道의 穀物協會代表者, 當業者等 二十餘名이 大擧 大阪, 東京方面에 赴하야 內地의 朝鮮米의不評을 一掃하는同時에 格付低下를 防止키爲하야 大活動을 開始하엿는데 影澤全北農務課長은 一行에압서 먼저 二日 釜山에上陸하야 歸任하야 如左히 말한다

朝鮮米의 內地移出地는 丸ナ米(平南北)는 東京方面, 角ク米(慶南北)는神戶方面이면 米(全南北中心)는 大阪方面, 菱ク米는 大阪에 移出하는 朝鮮米의七割을 占하엿다 그런데 昨年産 朝鮮米는 水害에依한 乾燥不充分과 收穫時期가 遲延되엿기때문에 調折米가 만헛스므로 不評이엿섯다 그래서 格付를 低下하야서는 큰일이라고 그 對策을 講究키爲하야 大阪에 가는데 大阪서는 關係當業者와 二十七、八兩日間 會合하야서 懇談會를하고 充分 諒解를어덧다 一時的現象임으로 이때문에 格付를低下하는 일은 업슬것이다 또이番機會로 十四、五兩日 朝鮮米大宣傳座談會를 열기로되엿스므로 下坂米穀課長其他一行은 東京으로갓다 今後더욱品種의改善, 栽培를督勵하고 乾燥를改善하야 朝鮮米의 聲價를 올리고저 努力하려한다

麥適期刈取 達城郡서督勵

【慶北支社發】達城郡에서는 道의 方針에依하야 麥의 適期刈取督勵를 하게되엿는데 田作은 來六日부터 十五日까지 畓作은 十日부터 二十日까지로定하고 郡守를 爲始하야 郡部以下 普通農事係員, 擔作係員에 總動員하야 一齊히 直接督勵指導에 當할터이라한다

碎米率引上을 朝鮮、內地모두据置希望

今次의 穀物檢査規則改正으로 白米의 碎米混入率은 現行의 一二%로부터 一〇%로 引上되게 되엿는데 이에 對하야 朝鮮內 業者間에서는 旣報한바와 如히 이引上으로 말미아마 蒙하는 經濟的實損이 現在狀態로보아 到底히 견듸수업다고 悲鳴을 올리고잇스며 一方 內地側의 意向을 綜合하면 朝鮮白米는 最近 搗精 調製의 技術은 顯著히 向上하야 內地米에比하야도이以上引上할 必要도 업고 碎米混入等도現在狀態로서 何等 問題가 업다 碎米率或은 水分含有率의 引上等은 헛되히 生産費를引上할뿐으로 結局內地消費者의 負擔으로되여 買受業者로서도 그리歡迎치안는 狀態이다 그리고 朝鮮側으로서는 現行 一二%로서도 그해(年)의 豊凶如何에依하야 또는新穀當時와減乾燥時는 碎米生産率에 큰差異가잇서 相當한 努力이 要하므로 極力그据置를要望하고잇다

朝鮮紙年産額 七十七萬圓突破

內地滿洲等販路擴張 其中見樣紙가第一位

【全北支社發】全北의特産인 朝鮮紙는南鮮一帶는勿論 全朝鮮 滿洲等地로 年年販路가 擴張되고잇는데 年生産額七十七萬一千七百二十二圓이라고한다 이제 그內譯을드르면如左하다

粉白紙	七二、三四二
貿物紙	一〇九、九六七
苔紙	二、一一〇
還漿紙	一二三、六四〇
壯紙	二九、一八一
雜仙紙	四七、三四〇
火紙	一、一六七
度紙	一五、七四八
窓戶紙	一四七、八二〇
見樣紙	二二二、六六七

今年麥作豫想高 —比前年一割七分二厘減少— 地方別론慶北이一位

昭和十三年麥作狀況은 作付面積이 百四十七萬六千八百八十七町步로 前年에比하야 一分八厘 卽 一萬六千三百七十七町步나增加되엿스나 昨年에比하야 大麥만은 一分四厘 一萬一千八百六町步減少되잇고 小麥은 比前年一分二厘四千三十一町步增 裸麥은 一割四分三厘 三千四百二十七町步增加이다 다음收穫高豫想을보면 合計에 잇서 一千二百十五萬三千八百二十二石인데 前年에比하야 一割七分二厘 二百五十二萬 六千二百七十九石의 減少이다 그리고大麥은 七百七十萬六千四百八十餘石豫想으로 比前年一割一分二厘 卽 二百八十四萬八千餘石減이다 이것이가장 減하엿다 小麥은九厘가增加하엿스나 裸麥은 一割六分二厘나 減少하엿다 다음 道別로보면 慶北이最高位요 다음이全南、慶南、忠南、黃海、全北、京畿、忠北、江原、平南、咸南、咸北、平北의順序이다 어제그統計를보면如左하다

昭和十三年麥作付反別 (町)

	大麥	小麥	裸麥	라이麥	計
京畿道	九六、七五三、八	三七、三三一、九	九四六、六	一、六四〇、〇	一三六、八六三、三
忠淸北道	七七、二二一、四	一六、二三〇、三	一、六九〇、七	四三一、五	九五、五七三、九
忠淸南道	八〇、〇一九、二	一六、六九九、六	九、二六七、八	七五五、四	一〇六、六九二、〇
全羅北道	三一、五四〇、九	六、二四七、〇	七六、五二一、三	九七、六	一一四、四〇六、八
全羅南道	三七、五一八、八	九、八二五、三	一四一、三一一、七	二六、〇	一八八、六八一、八
慶尙北道	二〇九、四九九、一	三一、五五五、九	一二、四〇四、六	三六〇、三	二五三、九一九、九
慶尙南道	一四三、四三三、四	一〇、二六二、七	三六、一七七、八	四九六、五	一九〇、三六〇、四
黃海道	一〇、六六八、六	一三六、三五七、一	一、八七六、七	三二一、一	一五一、三二五、六
平安南道	一八、六四六、四	四九、〇二二、三	三、八二六、六	二八一、二	七一、七七七、四
平安北道	三、九七八、七	四四一、一	—	二三三、〇	四、六五二、八
江原道	四八、〇三六、一	三三、一八一、五	四九三、〇	七九五三、四	八六、六六三、〇
咸鏡南道	四七、三八九、三	九、五五一、八	四、〇	四〇、三	五六、九八五、四
咸鏡北道	四六、八八八、三	—	—	—	四六、八八七、〇
合計	八四五、〇〇三、四	三四五、〇六四、六	二三七、八四三、八	一三、八六六、四	一、四七六、八八七、二

昭和十三年麥收穫豫想高 (石)

	大麥	小麥	裸麥	라이麥	計
京畿道	七五三、六六一	三一七、三六一	六、三一七	八、九九七	[illegible]
忠淸北道	六八七、五二三	一〇三、七六四	九八	一、八六八	[illegible]
忠淸南道	八〇七、七九九	一七〇、三〇三	七一、九五三	四、二九六	[illegible]
全羅北道	二九三、四四四	四〇、三四四	五六一、七一五	五、七〇三	[illegible]
全羅南道	四一八、六〇七	六三、八九五	一、三三一、九三一	二五一	[illegible]
慶尙北道	二、一七七、三三〇	一九三、四六六	五五七、六六四	二、六六四	[illegible]
慶尙南道	一、三八六、八六一	六三、八八六	三三三、八八八	三、四四〇	[illegible]
黃海道	八六、九九九	八八六、二一九	一五、〇〇六	一、一五九	[illegible]
平安南道	一三七、七七四	三〇四、三四四	一九、三三〇	一、一五四	[illegible]
平安北道	二五、五九九	一、八〇四	—	一、三五五	[illegible]
江原道	二九九、三六九	一四八、三三九	二、七〇三	四五、〇四〇	[illegible]
咸鏡南道	三三二、八八九	四八、九五三	三	二三四	[illegible]
咸鏡北道	二七六、九二三	一、六五二	—	—	[illegible]
合計	七、七〇六、四八三	二、〇四八、八六一	一、三三三、一五六	七六、三二三	[illegible]

昭和十三年麥作付反別累年表 (町)

	大麥	小麥	裸麥	라이麥	計
昭和八年	八八六、八二〇、八	三三三、三六八、八	一二四、六六〇、八	—	一、三三四、六二八、四
同九年	八八七、九三三、九	三三五、六二三、〇	一四〇、三一七、〇	—	一、三六三、七七三、九
同十年	八七六、八四三、一	三三六、四三三、四	一六三、九四三、〇	—	一、三七六、三一九、五
同十一年	八六一、三五三、九	三三一、三五三、三	二〇五、六三四、七	一五、四六三、〇	一、四〇五、九六〇、九
同十二年	八六六、八七九、三	三四一、〇三三、一	二三九、四一六、七	一三、一六〇、二	一、四五〇、五〇九、三
昭和十三年豫想	八四五、〇〇三、四	三四五、〇六四、六	二三七、八四三、八	一三、八六六、四	一、四七六、八八七、二
同十二年實收에對한增減	△二一、八〇六、九	四、〇三一、五	三三、四二七、一	七〇六、二	二六、三七七、九
同上步合	△〇、〇二四割	〇、〇一三割	〇、一四〇割	〇、〇五割	〇、〇一八割
前五個年平均	八七四、三二〇、〇	三三九、七八一、九	一七四、五五八、四	九、三二一、一	一、三八八、〇三一、四
前五個年平均에對한同十三年豫想增減	△二九、三一七、六	五、二八二、七	六三、二八五、四	四、五三七、三	八八、八五五、八
同上步合	△〇、〇三四割	〇、〇一六割	〇、三六二割	四、九一割	〇、〇六四割

(註)昭和十年以前은『라이麥』調査를缺함

昭和十三年麥收穫高累年表 (石)

	大麥	小麥	裸麥	라이麥	計
昭和八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illegible]
同九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illegible]
同十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illegible]
同十一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十二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十三年豫想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十二年實收에對한增減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上步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前五個年平均實收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前五個年平均에對한同十三年豫想增減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上步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註)昭和十年以前은『라이麥』의調査를缺함

穀用包裝協議會 運賃會議後開催?

穀物用叺은 昨年의 豊作에依한租檢査와 輸移出米의 增加 事變關係에 依한特殊需要增加와 其他 諸種의關係上顯著한需要增加와 豫期에反한原料藁의 不足等으로 極度의 拂底를招來하고잇

生活必需品價格 事變前水準에引下 物價委員會方針決定

中央物價委員會

池田商相이 物價對策을 重要視하고 從來와 如히 暴利取締令에依한다던지 或은 其他一時的彌縫策과如한 對策으로서는 萬全을 期할수업다고하야 物價對策上에 再考를하든中 池田新商相이 就任하자 去月二十七日에開催된 中央物價委員會에서는 國民의 日常生活上必需品及 國內生産商品의 物價를 現在의市價以上으로 騰貴시키지안흘 方針下에 個個의事情에依하야는 事變前의 物價에로끄러내리려는것도 잇게하고저하엿는데 이에 物價對策의 目標를주는것은 確實히世人의 耳目을 惹起케함에充分하다 卽物價의公正을 期할方法으로서 公正價格及 基準價格을現在의 一志二片의 爲替時勢에두고또 諸般事情을 考慮하야 決定하게 되엿는데 그適應輸入商品은輸入價格에 基하야 決定하고 또 生産品 其他 國內品의 物價는 事變前의 物價水準에 引下함을 目標로하엿다 이와 同時에 物價의 監視取締에 對하야는 全國에 配置한 三千名의 物價調査委員을 動員하야 重要商品의市價, 取引數量 取引狀況 在庫高의 報告에 基하야 監視의 強化를 取하고 또 重要商品의 市價告示라던가 定價販賣의 實施 라던지 或은 라디오를 利用하야 物價對策의 宣傳等을하야 極力物價抑制에 努力하게되엿다

緊急品目別로 專門委員會設定

第三回中央物價委員會는 廿七日午後 商工省에서 開催되엿는데 池田商相은 吉野前商相과 事務引繼로 欠席하엿스므로 村瀨次官이 代行하야 議事에 入하야 第一、第二兩特別委員會에서 審議한 事項은

(一) 第一、第二의 兩特別委員會下에 專門委員會를 設置함

(二) 公定價格、基準價格의決定及實施의方針

(三) 物價監視取締方針

(四) 地方物價委員會와의 聯絡方針

等을 決定하엿다 그런데 專門委員會는(A)第一特別委員會에서는 物價問題의 一般論의 見地에서 運輸의 改善策을 擴當하는專門委員會를 設置하고

(一) 運賃의 低減에 必要한方策

(二) 輸送을 圓滑케함에 必要한方策

(三) 運輸機關相互間의 聯絡改善에 必要한方策

(四) 其他運輸改善에 關하야 必要한 事項

等을 調査시켜서 間接的으로物價抑制의途를 講究하기로하고또 (B)第二特別委員會에서는 國民의 日常生活에 密接한 關係가 잇는 商品으로 從來에도 여러가지 對策을 講究하엿슴에 不拘하고 依然高價를 示하고잇는 商品에 對하야 左의 七個의專門委員會設置를決定하엿다

(一) 纖維品專門委員會=綿製品、毛製品、麻製品

(二) 食料品專門委員會=靑果、魚、野菜等의 生鮮한 食料品

(三) 化學工業品專門委員會=工業藥品、醫藥品고무及其他藥品

(四) 金屬品專門委員會=金屬類一般

(五) 燃料專門委員會=木炭、石炭、코크스等

(六) 雜品專門委員會=紙類、建築材料의 양철、瓦類、皮革製品의 靴、鞄、핸드백類及其他重要한雜貨

(七) 家賃交通費等專門委員會=家賃、地代、交通費等

그런데 專門委員會는 四名乃至八名으로 成立되고 專門委員에는 一部當業者에 局限치안코 널리消費者側(消費組合聯合會)으로부터도 人選하야 急速히任命할豫定인데 專門委員은 다시 個個의 商品別로 部會를 設하고 物價對策對立의 基礎調査를 遂行할터인데 어마今月上旬頃에는 最初의會合할豫定이라한다

監視取締具體方針 第二特別委員會報告

그리고中央物價委員會第二特別委員會(個人商業對策으로한것)의 總會에對한 報告內容은如左하다

A、公定價格 基準價格等의 決定及實施方針의件

(一) 我國物價의 現狀에 鑑하며 그騰貴抑制는 斷乎한方針으로 臨함必要가잇다 政府에서는 速히 이方針을 闡明하고 國民一般에 全面的協力을 要請할것이라고 認定함

(二) 現在의 騰貴時勢를 抑持하야 國民生活의 安定에 資할수잇는 範圍內에 抑制하므로써 物價騰貴抑制의 目標로함

(三) 公正價格 基準價格을 決定하는境遇 그價格은 物品의 事情에 應하야 大體로 左의價格을 標準으로함

(1) 輸入品=輸入價格

(2) 輸出品=海外市場價格

(3) 生産品其他國內生産一般物品=적어도 現在以上으로 價格을 騰貴시키지안흘것을 目標로하야 引下함

(四) 公正價格 基準價格等의 決定은 小賣、都賣及生産의各段階에 對하야 이를 行함을 原則으로함 또 原材料品에關하야는 이를 主原材料로하는 製品에도及함

(五) 公正價格 基準價格等을 實施함에 當하야는 政府에서 必要한 措置를 講究함은 勿論 當業者를 各其그業態에 應하야 組織化시켜 實施에必要한 措置를 講究함

B、物價의監視取締方針의 件

(一) 監視키爲하야 如左한 資料를 蒐集整理함

(가) 豫先指定한 必要한 物品 其他必要하다고 認定하는것을 選定하야 調査員으로 하여금 市價其他取引狀況을 定期的으로 調査시킴

(나) 重要物品의 當業者에 定期的으로 取引數量 取引價格 在庫高를 報告시킴

(二) 取締에 關하여는 前記資料에 依하야 必要하다고 認定되는者에 對하야 府縣官吏(警察官을 包含)로 하여금 이에 當케하는同時에 店舖倉庫其他에 對하야 實地査察을行케함

(三) 다시如左한方法으로 그徹底를期함

(1) 重要物品의 市價公示

(2) 定價販賣價格은 一般에知悉케하는 方法을 當業者에 講究케함

(3) 諸物價對策을 라디오其他를通하야 隨時一般에 諒知케함

(四) 地方物價委員會及 調査員은 價格의調査及그對策의樹立에依하야 實質的으로 監視取締의機能을 行함

C、地方物價委員會와의 聯絡方針의件

中央物價委員會에서 措處를 決定한 物品에 對하야 當該地方의監視取締에 關하야 必要한事項을 調査審議하는 同時에 地方的物價의 騰貴抑制의具體的方策을 調査審議함 그리고中央 物價委員會와의 聯絡은商工省及 地方廳에서 各其이를擔當하기로함

濟州島無水酒精 東拓進出遂決意 昨夜南、安川重要會談

濟州島의 無水酒精(甘藷를原料로하는)企業化에 對한 東拓의 態度는 安川總裁의 濟州島視察結果가 그成否의열쇠로 보이어 注目되든바 入京中이든 安川總裁는 三日午後五時官邸로 南總督을訪問하고 이點에關한 重要會談을하엿다 會談의內容은 極祕에 附해잇스나 아무도업섯스므로 燃料國策遂行上 無水酒精의企業化에對하야서는 東拓도 모든犧牲下에이에 應할準備가잇다 但無水酒精의 企業採算은 自信을가질수업스므로 그企業化에는 總督府로서도 어떤程度의保護 乃至補助를주어달라고 東拓의 態度를 明白히하고 會見을終하엿다 그具體案은 아직東拓으로서도成案을得키까지에는 至치못하엿스나 問題는 東拓의如斯한意向에對한 總督府의 態度如何로서 이企業에對한 補助工場地의 半島側設置는 濟州島開發計畫과의 關係等 東拓側의提示한條件을 그대로 容認키가疑問이지만 今後 兩者의具體的折衝에依하야 大體 如左한計畫에 再編되고 實行에 移하게되리라한다

一、濟州島에서 約三千町步의甘藷栽培를하고 總督府는 그買收價格을 어떤程度保障할事

二、工場은 우선 木浦에設置할事

三、總督府는 企業不採算을 補償하야 無水酒精會社에 配當保證 或은 補助金을與할事

四、無水酒精會社는 東拓單獨經營으로 하지안코 燒酎聯盟其他와 共同出資할事

五、會社의 資本金은 五百萬圓 二分의一 拂込程度로할事

工場地로 木浦誘致 四日上京陳情

濟州島의 無水酒精製造計畫은 東拓側이 工場地를 濟州島以外의 半島側木浦或은 群山을 條件으로 希望하고 잇스므로 木浦에서도 工場誘致運動이 開始되어 同地의 森田穀物協會長 油谷商議理事는 四日 入京하야 安川東拓總裁를訪問하고陳情하얏다

濟洲島抛棄困難 ◇工場問題解決難

幾多의 曲折을거듭하고잇는濟州島 無水酒精工場問題에 關하야 安川東拓總裁는 總督府를訪問하고 現地視察의結果를 齎來하야 農林局長其他 關係官에게 東拓側의意向을 說明하고 意見을 交換하엿는데 安川總裁의意見도 同社調査團報告와 同樣으로 여러가지點으로부터 同島內의工場設置를 不適當하다고하야 總督府側의 再考를 要請하엿는데 總督府로서는 압서燒酎聯盟과의 交涉도停頓되어 安川總裁와의 政治折衝에 多大한期待를두고잇섯슴에도 不拘하고 어떤한前記事情으로 急速한進步은 困難視되게 되엿스므로 安川總裁도 無水酒精工場의國策性에 鑑하야 本土內의建設에는 積極的協力을 不惜할意向으로 [illegible]

[illegible] 스나 最近에잇서서는 [illegible] 로原料手當難의 [illegible] 으로 [illegible] 에잇는一方滿洲國의 [illegible] 不足도 [illegible] 하고 最近은 [illegible] 에서도 [illegible] 協議하거되엿다한다

[illegible] 되어 總督府는 [illegible] 以上으로 이點을 [illegible] 하고잇서 [illegible] 은

一、朝鮮內에서 原料甘藷의 大量的供給은 現在濟州島以外에는 이를提出키 難한것

二、本土에 工場을 設置한境遇에는 總督府의 半强制的獎勵만에 依하야 農民이 甘藷栽培를 積極的으로 行할는지 疑問인것

三、濟州島以外로부터 大量의甘藷를 取入하는것은 價格의點으로 採算不利하야 結局코스트高때문에 너무나 高價인無水酒精을 製造하게될것이니 이러면 차라리 石炭液化에主力을 傾注함이 得策이라는것

等의見解를 가지고 甘藷를 原料로하는 無水酒精工場은 依然難問題로 殘存케되엇다

酒精官營工場을 六個所에設置 原料는甘藷馬鈴薯로

戰時燃料對策으로서 商工省에서는 五月一日부터 까솔린配給購買分制度를 實施하엿는데 또七月一日부터 揮發油及알콜混用法에基하야 自動車等內燃機關用(航空機關用, 化學用, 醫藥用, 洗滌用等을除함)의 까솔린에 對하야 알콜을 强制的으로 混入(까솔린九五% 알콜五%)시켜 까솔린節約策을 一段强化시키기로되엿는데 商工省은 大藏省專賣局과 協力하야 알콜增産計畫에 拍車를 加하기로하야 이때문에十三年度에 九州地方三工場 四國地方一工場 東海地方一工場 北海道一工場 計六工場을 設置하기로되여 目下基地를 選定豫定이다 右六工場이 實現하면 十二年度事業으로 이미 建設된 五工場(千葉, 茨城, 鹿兒島, 熊本宮崎의各縣各一工場, 一工場當 二萬石生産)과 相俟하야 全國에十一工場의 알콜官營工場의 設置를 보게되엿다 그런데 右工場은 모두農村의甘藷及 馬鈴薯로부터 아미로法에依하야 알콜을 製出하는것으로 農林省에서도 그原料인甘藷 馬鈴薯의 增産에注力하고잇다 또官營工場外 民間工場에서도 特許又는 委託을行하야 알콜增産을 圖하게하여 이미昭和酒造의川崎工場을 特許工場으로서認可하고 最近에서는 東亞酒精興業, 東北興業의 兩社에도 委託하야 目下工場을建設中이다

昨年繩叺筵生産高 比前年全部가增加

昭和十二年度의 繩叺筵生産高를調査하면 叺는八千九十九萬三千二百二十枚 價額一千三百九十七萬七千七百七十圓, 改良筵六百七十一萬七千一百八枚 價額八十三萬七千二百一圓, 在來筵二百二十萬五千二百四十一枚 價額二百六十二萬五千二百 六十八圓 繩八千四百四十萬六千七百二貫 價額八百四十萬九千三百七圓이다 이를前年에比하면 數量에잇서 改良叺四百二十萬 一千二百六枚 (一分四厘)改良筵四十五萬 九千六百七十四枚(七分四厘)의 增加를示하고 在來筵十二萬五千四百六十枚(五分四厘)繩二百五十六萬 五千七百八貫(三分一厘)의減少를 示하엿다

價額에잇서서는 改良叺十五萬二千七十八圓(一分四厘)의減少를 示한것은 十一年度의 穀物不作에 依하야 需要가적어 持越在庫品이 만코 十二年度初의 生産叺의 價格低下를 招來한것에 依한 改良筵二十萬一千三百 八十八圓(三割一分七厘)의增加를 示하야 在來筵六十一萬二千二百五十四圓(一割八分九厘)繩九萬 一千四百六十一圓(一分一厘)의 減少를 示하엿다

過驛金組主催 叺繩競技會開催 參加者約千名

【高興】昨今의 叺價格이 暴騰하야 全朝鮮的으로 副業으로는가장有利하다 이에着眼한 高興郡過驛金融組合에서는 叺繩의 改良과 增産을 指導獎勵키爲하야 今月二日午前十一時부터 過驛小學校運動場에서 叺繩과繩綯競技會를 開催하야 參加者約千名 組合長 孫在明, 理事崔東文兩氏의 人事를이어 審査委員長 張在圖 委員朴幸龍兩氏의 規格說明으로 始作하야 午後二時 끄를막고 愼重히 審査한後 施賞을마추고 滿場歡呼裡에 閉會하엿다

今番叺繩競技는 參加者千名에 達하는盛況으로全朝鮮的으로도 그類例가 업는 大盛況이엿스며 더구나 一等受賞者는 二十歲未滿의 小學校指導生이엿다한다 當日의 參加數와受賞者는 아래와갓다

叺繩競技參加數 三百七十三組 七百四十三名

入賞者▲一等 洪璿杓▲二等 申義祚▲同 李同順▲三等 申龍求▲同 鄭貴成▲四等 宋永基▲同 朴寬出▲五等 金永順▲同 申判休▲同 金俊錫 六等以下略

繩綯競技參加人員 百六十四名

入賞者▲一等 崔景洙 ▲二等 崔鍾根▲三等 申琪雨▲同 金永模▲四等 金日來▲同 申兌雨▲五等 朴太鎬▲同 金洪集

叺繩最速所要時間 五十八分

繩綯十分間最長者 二十三間

百日咳

백일해의內服藥으로써 가장적확한효과를 가진약으로 지밋신이늘소아과전문의사제씨의추천을받고왓든것입니다 초기에는예방이되며 병의진행중에사용하시면 日數를단축식히고 발작의도수를적게하며 기침을개이게하고 무서운병발증=폐염 뇌막염등을방지하며어린애의몸쇠약을방지해줍니다 맛이좋고 먹기가편함으로 아모런약을실허하는애라도잘먹게됨으로 더욱有效하오며 조곰도근약성분이석겨잇지아니함으로 안심하고사용하실수잇읍니다 그러므로어느가정에도 꼭한병식준비하여두시사 미전에병을예방하고 속히곳처주시기바람니다

담기침·발은기침에

チミツシン 지 밋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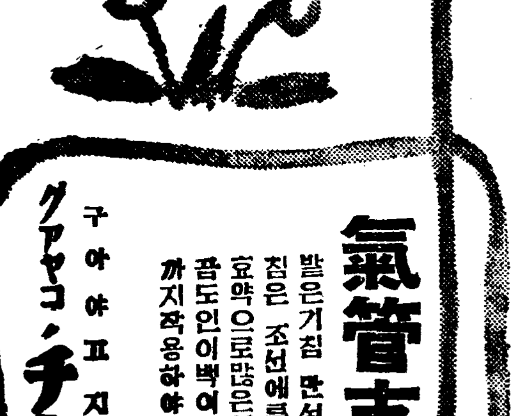
一圓 一圓八十錢 全道藥房에 잇읍니다

喘息

천식은일년을두고 고롭을주는병세인만큼 환자뿐만아니라 집안사람도수심에가득하게만드는병이니 증환용지밋신=에푸에도로 지밋신으로치료하시면 병세도개이고잘주무시게됩니다

一五〇瓦…一圓八十錢

에푸에도로 지밋신 エフドロ・チミツシン



氣管支·肺·肋膜

밭은기침 만성호흡기병으로인한기침은 조선에특히많으나 本劑는특효약으로많은稱讚을받고잇으니 조곰도인이백여는법이없어 병근원에까지작용하야 속히낫게하여줍니다

一五〇瓦…一圓八十錢

구아야코 지밋신 グアヤコ・チミツシン

東京・大阪 田邊商店

TY-K-17

經濟解說 代用工業奬勵

價格을昂騰식히게된다

物價高와그對策 ⑰

國家間의貿易은 自給自足策과의 關係에 對하야살펴보기로하자。

◇

諸國家間의 貿易에 自由通商의原則이 支配的이엿든時代에잇서서는 各國家間에는 分業이行하야 各國은 生産條件이 有利한 物資生産에 努力하고 生産條件이 不足한 物資라든가 不足한 原料等은 外國에서 輸入하는 有無相通의 關係가 成立된다。그러나 國際貿易에 經濟的國家主義가 支配的이되여 各國間에 高率關稅、輸入制限의 노르는限度이생기어 各國이 自給自足主義를向하고 邁進하고잇는 時代에는 事情이달러진다。各國은生産條件이 조치못한 物資의 生産에 까지손을대고 海外로求하면 廉價로自由롭게 購入할수잇는 物資라도 高價인 生産費를 드려가면서 國內에서生産하게된다。特히最近과가티國際間에惡氣流가 低迷하야『國際情勢』가 一觸卽發할情勢에잇슬때에는 軍需品은如何한犧牲을 하여서든지 自給自足을 꾀치안흐면 아니된다

各國이 모두生産費가 比較的으로不利한것을 실행하지안코 軍需品의 原料인 代用工業奬勵、貧弱한 國內資源의開發에 各國이全力을다하고 特히人造石油의 生産에는各國이서로 其製造에努力하야英國과가티 海外領土에 豐富한石油資源을가진 나라까지도 石炭液化工業을 어르키는現狀이다 中南其他에 萬一事變이 發生하야 海外領土와의 連絡이遮斷되는 境遇를 憂慮하야 石炭液化工業을 어르키는現狀이다 其他現在의 我國과가티 國際收支調整上 그것이 절사必要한商品이라하드래도 任意로購入할수업는 狀態에잇서서는 이觀點에서 또 代用工業의奬勵를 行하는것이다 以上과가튼 理由에依하야 國際間의 物資配給에 自由로운 流通은人爲的으로 遮斷되여 各國은 크거나적거나 『自給自足』主義로向하고

엿는바 그것이 國家的으로는不自然한것이고 또 조치못한生産條件임에도 不拘하고 行하지안흐면 아니되는데엇서 物價騰貴를 誘致하는傾向을 가지게되는것이다

軍需品의必要와 國際收支調整上 代用工業을 奬勵하고잇는것에잇서서 價格의昻騰을 惹起하고잇는터이나 代用工業이모두 價格昻騰을 誘致하는것이라고는 斷定할수 업다 그러나 將來技術의 發達에依하야 生産費의 切下도 想像되드래도 現在我國의 緊急한 必要로보아 生産條件이 조치못하드래도 行치안흘수업는境遇 그것이 商品價格의 騰貴를 誘致하는것은 否定할수 업다

다시 貧弱한資源開發의例에 對하야보면 吉野前商相은 銅、鉛『니켈』等 國內에資源이 缺乏한 金屬等에 對하야서는 金屬鑛의 開發을 促進하야 此等의 增産을 促進하는例에 價格을 引上하야 依하야

『國內增産』을 促進하려는意圖를 가진것이엿는데 如斯한方法이 物의價格을 引上하는作用을 하는것은 明白하고 其他貧弱한 國內資源의開發에際하야서는 어떠한事態가 일어날것이 明白하다。

◇

以上에서 본바와가티 我國은 今後軍需의必要와 國際收支調整上 代用工業의 奬勵와 國內資源의 開發等을 繼續하야 行하지안흐면 아니될터인데 大勢로보아 이러한 傾向이 商品價格引上의 作用을 하고잇는것은否定할수업다。

◇

以上에엇서서 最近의 物價昻騰의原因을 各方面으로 追跡하엿다。먼저 通貨와物資의 兩側面으로부터 이것을 觀察한結果 通貨의 側面에서오는 作用은 微弱하며 『物價昻騰』의 主要原因은 膨大한需要에 對하야 我國生産力이 不足하야 各方面에 生한 物資不足에 基因한다는것을 究明하엿다。다시 이에 拍車를 加하는것으로서 一、獨占價格 一、增稅 一、運輸力의不足 一、運賃의昻騰 一、勞力의不足 一、勞賃의昻騰 一、代用工業의 奬勵 其他 自給自足策等의 諸種의 特殊原因이 動하고잇는것도否定할수업는바 次回부터는 그對策으로드러가자。

註=增稅、運輸力不足、勞力不足等에對한 詳細한 解說은 省略한다。

戰時下의農林國策

農林水産物生産力維持一貫

日滿支『쁠럭』經濟圈內調整

生産配定、販賣統制

【東京】戰時體制下의 農林國策을決定할 第一回의 農林省議는 二日午後二時부터 農相官邸에서 開催하엿는데 有馬農相、高橋、井野兩次官以下 各局部長 各試驗場長이 參集하야 三時間에亘해서 戰時農業政策 確立에 對하야 熱心히論議를交換하고 午後五時에 散會하엿는바 具體案에 關하야서는 各局長이 考究하야 來十五日에 第二回省議를열고 各局長으로부터 提出한 案에關하야 檢討하리라한다

二日의省議에서는 劈頭有馬農相으로부터 戰時體制下의 農林國策으로서는 軍需民需를通하야 必要不可缺한 農林水産物의 生産力을 維持함에主眼을두고 方針에卽하야 經營을考慮하고 按配할必要가잇다 其中 米麥等의 主要農産物의 生産維持는 勿論 軍需農産物其他 必要品으로써 從來에 輸入하던것도 可及的國內에서 生産케할方針을取하고 境遇에잇서서는 强制的生産配定을 行할方針이다 또 今後의農林政策 樹立에 잇서서는 어디까지나 日滿北支의經濟圈內에서 調整하려고 這間外地滿洲國支那와의 干涉事項에 關하야서는 農林省으로부터 提案하야 適當한 聯絡機關을 設置하고 善處하고싶다는 大綱을 陳述하고 各局部長으로부터 各各所管事項에 關하야 意見을 開陳하엿는데 其中 『까솔린』消費規定에依한 水産物減收、農業勞働力不足에依한 農業經營의 粗放化、木材、畜産物의 消費節約에對한 對策等에 關하야 注目할만한意見이잇섯스며 今後의農林政策은 如何한事態가 發生하든지 어디까지나 農林水産物의生産力維持를 一貫하야 나아가게되엿스며 其結果 農産物의生産配定、販賣統制의 線에副하야 農林政策도 必然的으로 統制强化의方向으로 나아가게되엿다 (寫眞은 有馬農相)

銀行貸出增

肥料、繭資金需要로

五月末現在=京城組銀

京城組銀五月末現在의 預金貸出高를 보면 預金은 二億八百六萬一千圓으로 五月中旬에 比하야 二百五十四萬四千圓 前年同期에比하야 五千七百八十五萬三千圓이 增加되고 一方 貸出도 二億七千七百三十八萬七千圓으로 五月中旬에 比하야 一千六百六十二萬六千圓 前年同期에 比하야 五千九百三十二萬四千圓이 增加되엿는바 貸出의 膨脹은 肥料資金、繭資金等이 需要된때문이다 預金貸出高를 前年同期와 對照하면 如左하다 (單位千圓)

	五月末現在	前年同期	比較增
定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當座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特別當座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通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諸預金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證書貸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手形貸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當座貸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割引手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荷爲替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光州商議提出議案

朝鮮商議總會에 提出된 光州商議의 議案은 如左하엿다

第十四號議案

船車貨物輸送中 最近 顯著히 貨物의 破損、紛失等이 잇서 이防止에 對하야 一層留意해 주기를 當局에 要望할件 (光州)

理由

事變以來 關係職員의 不足其他貨物의 輻輳等에 依하야 不得已한것도잇겟스나 最近顯著히 貨物의 破損紛失等이 增加하는 傾向이잇슴은 甚히 遺憾이다。此等은 取扱者와 監督者의 不注意에 依한것이 多數잇스므로 關係者에게 充分한 監督을 加하도록 當局에 要望하려는것이다

純綿布浮動

三A少返!

今日은二百七十圓

米棉二十錢高、印棉六十錢高의材料로 三品不變、市中은 先限及現物突込過度로 押目買人氣化하야 强調이어서 三A는 三百七十圓으로 休日前보다 五圓의少返이엇다

人絹染色加工

料金二割引上

朝鮮人絹染色加工同業組合에서는 染料、石炭、包裝、材料諸品의 暴騰에依하야 加工料金値上을 協議中이든바 來十月一日 出荷分(十月渡)부터 一律로 染色加工料金二割의引上을 實行키로決定하엿다

朝取決算査定

朝鮮取引所에서는 六日午前十一時부터 重役會를開하고 如左한今期決算案(二分減配인一割四分)을査定하엿다 總會는 二十五日午後一時開催키로決定하고 任期滿了의 理事及監事(田端理事를除한)는 全部重任張斗鉉監事는 辭任하고進藤監事는 重任키로內定되엇다 第十三期利益金處分案은 如左하다

當期總益金	四九五、九四一
當期總損金	二七〇、〇九八
差引	
純益金	二二五、八四二
前期繰越金	一三、四九八
合計	二三九、三四〇
此處分	
法定積立金	一五、〇〇〇
別途積立金	一五、〇〇〇
所員退職基金	五、〇〇〇
役員賞與金	一七、〇〇〇
取引員奬勵金	四、五一六
配當金(年一割四分)	一六八、〇五九
後期繰越金	一四、七六四

遊資의不動産化

積極化는警戒할일

지나친金融梗塞은修正必要나

最近朝鮮內金融의 緩漫化에件하야 一部에不動産에의 放出機運을招致하엿는데 右에關하야 鮮銀當局에서는 如左히 斷乎한見解를가지고잇다

卽 最近招來된 金融緩漫은 當然한것도업서 金融政策에 基한것으로 이緩漫을 招來함에 依하야 時局下의 國債消化를 圓滑히하야 時局産業의 生産擴充遂行을 期할수 잇는것이다 이事態를 充分히 認識하면 自然今次의 金融緩漫에 對應할 金融機關의 方針도 明白케될것이다 勿論不動産金融이 一時必要以上으로 梗塞하야 警戒되든것은 事實로서 이것의 圓滑한 金融遂行을爲하야 若干修正은 必要하겟지만 金融上의 不安이업다는 理由로 여것을 積極的으로 行함은 警戒할일이다

東拓支店貸出

東拓京城支店貸付金도 增加되어 五月末에 一六、八四四千圓으로 前月末에比하야 一、四九三千圓의增加인바 그內容은 定期貸付九、六八六千圓 年賦貸付七、一五七千圓이다

五月手形交換增

五月中의 京城手形交換所交換高는 十四萬三千百七枚 金額一億三千七百一萬圓으로 前前年同月과의 比較는如左하다

	枚數	金額
本年五月	[illegible]	[illegible]
〃四月	[illegible]	[illegible]
前年同月	[illegible]	[illegible]
前前年同月	[illegible]	[illegible]

五月中의不渡手形은 四十二枚 四萬二百六十二圓이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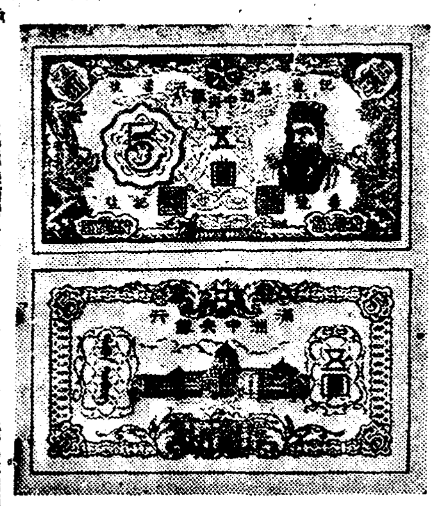
有價證券所持

半朔에五百萬圓增

京城組銀의 五月末有價證券所持高는 一層激增되어 合計三億三千三百九十二萬三千圓에 되엇다 五月十五日計에 比하야 五百…

孟子像그린五圓新紙幣

中銀에서七月一日發行



滿洲中央銀行에서는 來七月一日부터 五圓新紙幣를發行하고 從來의紙幣와併用키로되엿는데 新紙幣는 從來의五圓紙幣보다 小型으로 縱七十四미리 橫百三十七미리地模樣은 銀灰色 濃茶色及淡綠色의配合으로 表面은孟子像、裏面에는 國務院廳舍가印刷되어잇다 이로써이미發行된一圓、十圓、百圓紙幣와 共히 新紙幣가 全部된것이라한다 (寫眞은 五圓新紙幣의原圖)

新知識

需給調整協議會

戰時體制下의 最大難關은物資의 調達과 그配給圓滑을 圖하는일이다。아모리 돈이잇다하더라도 物資가업스면아무것도아니다。또物資가 잇더라도配給이잘안되면 여러가지問題가생긴다。例컨대 最近의 物價高의一因은 配給의圓滑을 缺한때문이다。

◇

事變勃發以來 軍需를充分히調達하고 不要品을 抑制키爲하야制定된 輸出入品等臨時措置法에는 이重要한 物資의配給에關한 規定이업섯스므로 第七十三議會에서 需給調整에關한條文을 挿入하얏다。이改正輸出入品臨時措置法의 第二條第二項에基하야 商工省은 今回需給調整協議會令이라는 勅令을公布하얏다。

이協議會는 綿絲와羊毛에關하야 設하얏는데 繼續하야重要商品의 各個에 就하야서도 設立케될것으로써 例를 綿絲에取하야보면 『綿絲需給調整協議會』라고한다。이會의會員은 輸入、生産、配給、消費의 全部門에 亘하야 統制的으로 組織하는團體이다。이點이 從來의綿業調整協議會와 다른點이니 卽從來는 政府와民間이 協力하얏스나 어데까지나民間協議會는 全部民間當業者로서 構成한다。

◇

그러타고決코 民間自治에 委하는것이 아니오 이協議會의 設立으로부터 解散에 까지 一一혀 主務大臣의 監督을 受하며 또主務大臣이 必要하다고 認할時는 協議會의 規約과 會의 決議事項變更及 取消를 命할수잇다。從하야 이需給調整協議會令에 依하야 統制되고 同令의 運用에當한 商工省은 物의 輸入、生産、配給、消費의 全面에 亘한統制의 열쇠를가지게된다。

◇

綿絲와가티 法定最高標準價格制를 採用한것에 對하야서는 이需給調整協議會에서 最高標準價格을 決定하고 商工省에 告示케 되엇다。要컨대『物의省』으로써

貿易懇談會

戰時體制의 第一線에선 商工省의 『브렌、트러스트』로써 그活動이 注目된다。商工省은 官民協力에 依하야 貿易을打開코저 前月에 商相官邸로 民間經濟團體의 首腦部를 招致하고 協議하얏는데 그結果民間經濟團體는 一體가되어 打開策을 樹立키로되어 그審議機關으로써 貿易懇談會를 設立하얏다。民間經濟團體라는것은 經濟團體聯盟、輸出組合中央會、工業組合中央會、商業組合中央會、全日本貿易聯盟會의다섯이다。이懇談會는 五月十四日創立된데來十數回의協議會를하얏다。

人絹도公定價格制

十月부터實施될모양

【東京】商工省에서는 綿絲에對하야 配給統制와 公定價格制를 施行하얏는데 事務當局에서는 人絹에對하야서도 如斯한 公定價格制를 施行코저 考慮中인모양이다

卽人絹은原料『팔프』輸入抑制와 國內物價高에伴하야 騰貴傾向이 어强하고 萬若이것을放任하면人絹價格騰貴로 輸出不振케할 念慮가잇는 一方 下期의人絹팔프輸入이 相當한程度로 削減될것으로서 팔프配給統制와 竝行하야 人絹도綿絲와가튼 公定價格制를 採用하자는것으로 그實施期는大體十月頃으로觀測된다한다

株式 極閑散 浮動

今日의市勢(六日)

前場底强 昨週末鐘紡中心의 波瀾을 보엇後 休日中의外交涉되어 人氣는 沈靜한中에도 漲味를不失하야 寄付는 東新一高 鐘紡六低로 閑散이엇고 實買도 極閑散하야 大口買는업섯스나 賣物이 滯在하야 結局東新에는 賣物好轉豫想으로 低價百四十九圓丁 鐘紡二百五十一圓九에止하엿다

後場閑散 後場은 東新一低、鐘紡은 保合으로 寄付後 依然閑散保合裡에 終始하엿다

依然鍛錬市勢

鐘紡增資好感說과 輸入制限緩和에依한 輸出振興策을 好感코 昨週末의 波瀾을 그러나 休日中의情勢에는 어러한 큰變化가 업고 鐘紡增資許可與否도 尙今 未說이어서 思惑의 範圍를 벗지 못하는것이어서 積極買는 尙早라고하야 買方은 依然 愼重한 態度를 가저고엇기때문에 再次 鐘紡合商(?)을 보이게되엇는데 取組의下長、取組高의增大、長期戰의不可避、外交關係의複雜性等을 보면 依然 單純한 樂觀하는狀態로 保合脫却은 尙遠이라하겟스나 戰局의進展으로 國府動搖는 甚大한바가엇고 外交關係도 從來의經驗으로보아 廣東爆擊問題가튼것이 큰問題化할性質의것이못되며 低迷를繼續하는株의利廻는 모두 昻揚되어 餘地는 疑問視되는것等을 考慮하면 金融緩慢의支援과함께 有力한 動機에 接하거만하면 好轉될수잇는 楷梯에 잇는듯하야 積極買는 그時期가아닌듯도하다

政策今後期待

池田藏相의財經策은物價對策、輸入緩和、輸出振興策을 始初로 着着具體化의 途程에들고 그方策도 또한財界의 歡迎하는바되고잇스나 內閣改造後엔 必至일것으로 觀測되고잇는 幾多의 新政策에 關해서는 아직아모런 具體案의 發表가업서 이것이遂行될程度와 方向과時期는 全然 豫測을不許하는 關係도잇서서 이 推移에深甚한 關心을가저고잇서 이것도市場氣運의 一原因이 된듯하야 따그로는 外交問題로 因한 殘局의牽制에 鎭靜되고 언으로는 이政策具體化의 透視가可能하게되지안흐면 買警戒는 容易히 解消되지안흘것으로보여 或은 좀더鍛錬市勢가 繼續할는지도 모르나 保合을더지 하지안코 大幅瓦落的場面은 日滿關係의惡化가오지안는限 爲先업슬수업슬것이라고 觀測하는이도 不少하다

國債一息閑散

【東京電話同盟】休日前暴騰後이나 依然積極態度는 보이지안코 모두一息商狀을 呈하고잇다新甫는 價位關係로五錢下値에 凝着하야 不變인商狀으로 閑散을極하야 小賣買가散見될뿐이다

▲一回四分 一〇一、四五 ▲二回四分一〇一、四五 ▲佛貨四分一九八、〇五 ▲米五分半 一三〇、〇〇

期米 續高後少弛

前場伸惱

(休今朝는…) 大阪地先限三十二圓二十六錢인 十丁高로 一高寄 豫想케한 그대로…

마바라側活躍

事變下의 各地市場은 投機熱은顯著히 比前減少하야 閑散되는바 大手筋은 大部分 傍觀하고잇스므로 賣買高가 激減退되는 現狀으로 『마바라』側만이 大活躍하는 모양이다 昨今東販其他各地가모두 『마바라』의 策動으로 米價를釣上하는 모양인데 그目標의 材料는 提近移入을 見越한것으로 豫期하엿든 蓬萊米가 船腹不足으로入津이 稀薄하고 또朝鮮産地도 賣惜關係로 市價堅實하다는것이다 그러나 朝鮮米의 內地移出로보면 去五月中에 百萬餘石으로 總移出累計가 八百萬餘石에 達하야 內地米價에 威脅을주고잇스며 또蓬萊米의入津稀薄은 一時的問題로 早晩間移入되고할것인즉 그다지强材로 取扱할수 업다고看破하는 者도 잇다

後場少弛

後場은 三十二圓四十六錢으로 三十二圓四十四錢 二節四十二錢 三節四十一錢 四節四十二錢 五節四十一錢으로 少弛이엇다

朝鮮各港在米

前年보다微增

去五月三十一日 現在朝鮮各港在米는 政府米百萬石을 除한 民間所有米 總百十九萬八千四百七十二石으로 前年에比하면 四十六萬六千六百二十七石의 激減으로 前年同期에比하면 五十八石의 微增을 示하엿다 그런데 政府所有米는 昨年은 皆無이엇고 今年은 百萬石이나되고 産地의 在品이 昨年보다 적다고만일것은 事實이므로 前途需給의 悲觀을 呈하거꺼지에는 열느지안흘모양이다 그런데各港의 在米別을보면 左記와갓다

釜山	二三三、五七八石
馬山	二六九、三一〇
麗水	七一、三三六
木浦	一四一、六一八
群山	二二八、一二八
江景	一四、七七四
仁川	二〇四、六五七
鎭南浦	二六七、七〇八
元山	一六、一八〇
城津	一七、四二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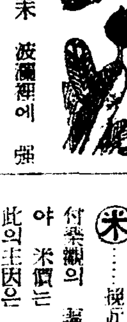
米 … 提近大阪는 順調로傾

力強裝으로보아 어정어정未?

米價는 期正共히强調야 付寄觀의 基軟를 무한데反하야 此의主因은 産地의 賣惜으로 正米實勢가 强하고 又는 船腹不足으로 蓬萊米의 入津이 稀薄하다는것 ▲臺灣米의 移入如意치안흔은 戰時體制下勢不得已한일이나 그러라고 이수杜絶狀態는아니엇다 早晩間에 들어올것이 다들어오고 야말모양 ▲그리고 産地農家의 賣惜은 每年依例히하는行事인즉 그다지强材로 取扱할수 업다고看破하는 者도 만타 ▲ 그러나 新穀相의 高物價抑壓政策이 具體化하는今日에此過高價에서 賣惜한다는 것도疑問 ▲忠南一圓에는 白米一升에三十錢以上 實賣買하지못하게警察이 絶對干涉한다고 事實일지도 未知

株 … 昨週末 波瀾裡에 强

調를 보인市勢는 環境不透明으로 다시 鍾狀▲鍾狀은 鍾狀이나 底價는 頑强하야 容易히 低活도 不許▲勿論 依然 仕手는 消極態度를 取하야 마바라의 小賣合에 不過▲그러하면 下長이된 各地의 取組를보고 여쩌 買할수잇스라하고 反面되지안흘도 아니로되 ◆資源株、軍需株等 時局株까지도 昻揚하야探算範圍에 入한것을 考慮하면 實際株가 股許일지?▲時局이니 平常時의解釋만으로 豫測키는 不可能하니 氣迷안될것이니▲大觀底保鍛錬의伸



今日財界大日

◆米 (單位錢) 今日終止 比前日終止

	今日終止	比前日終止
大阪期米先限	[illegible]	不變
京城一等	[illegible]	不變
白米百升	[illegible]	
正租(仁川)一等	[illegible]	
고무 F A Q	[illegible]	

◆株 (單位十錢) 今日終止 比前日終止

	今日終止	比前日終止
朝新	[illegible]	
東新	[illegible]	
鐘紡	[illegible]	

◆商品 (先物單位錢) 今日終止 比前日終止

	今日終止	比前日終止
綿絲	[illegible]	
人絹	[illegible]	
砂糖	[illegible]	

後場少弛

後場은 三十二圓四十六錢으로 三十二圓四十一錢 三節四十一錢 四節四十二錢 五節四十一錢으로 少弛이엇다

正米 清算高로 昻進

京城上進

奧地는 雨量의 過多와 南鮮은 旱魃이 엿서서 一層强硬하야 賣買俱히 稀少하다 當用側의 手當도잇서 大口側의 思惑과 賣惜으로 市勢는 드디어 二十錢昻騰되엿다 三二、三〇 四等三二、〇〇 一等白米 三二、九五

仁川昻進

昨休日中 依然 內地入注는 活氣가업고 精米側은 買傍觀을 繼續하고엿다 産地는 强硬하야 賣買모다업고 當側의 物色買出로 少堅인데에 定期의 續硬으로 賣方의 唱價도 强硬하야 休日前에 比하야 十錢昻進되어 一等三二、六〇 四等三二、一〇 一等白米 三三、一〇

釜山續昻

因한 手當難으로 市勢漸高商狀을 떠라고잇는데에 期米의 續高로 上放手當入하야 人氣는 强硬하야 唱價는 繼續十錢高로 三等三二、五五 四等三二、三五 一等白米 三三、三五

大邱續騰

先高의事로보나 奧地大口 …

群山奔騰

産地는 貨車不圓滑로 實物滯貨로 各地滿算의 昻騰을보게되어 綜合的으로 市中低價實物의 當時實用米手當難으로 內注到來와 精米側의 當用買가 散見되며 思惑의 實人氣旺盛으로 市價十五錢乃至 二十錢奔騰되엿다 一、九〇 四等三二、七〇 一等白米 三三、一五

木浦昻騰

梅雨期로 非常한 好順을 보이고엇스나 最近期로 因하야 奧地로부터의 出廻가 二日間에 僅入하야 極少인데 모두 實付米로 市中에는 나오지도 안코 非常時의 實付로 各地期米의 上放과 休日이지난

朝取期米取組內容

	當限	中限	先限
賣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買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正租 … 比昨年

▲正租	五二、六三一石	比昨年 八〇、八四二石增
▲玄米	六、四、七五三石	
▲白米	九、七〇〇石	
▲精	五、六五五石	比昨年 六、五〇〇石增
▲糯米	一、九石	

吉村榮左エ門商店

福

朝取 證券米 京城黃金町 取引員 株 米 仁川本町

東京 期米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電話 一六〇九 · 一六二九

益 益康 仁川 京城 金益證券

株式

◆朝取短期◆ (寄付・大引・高價・低價)

銘柄	寄付	大引	高價	低價
朝取 前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前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新 前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新 前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新滿業 前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鐘紡 前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取主要取組高◆ · ◆實定代引日步◆ · ◆東京短期◆ · ◆東京現株◆ · ◆大阪短期◆ · ◆朝取短期賣買高◆ · ◆大阪短期取組◆ · ◆大阪長期◆ ·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期米

◆朝取期米◆ · ◆朝取期米賣買高◆ · ◆大邱期米◆ · ◆木浦期米◆ · ◆群山期米◆ · ◆釜山期米◆ · ◆東京期米◆ · ◆大阪期米取組◆ · ◆大阪期米◆ ·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京城物價 (六日)

▲白米 (升、單位錢) · ▲麥粉 (新三斤) · ▲肥料 · ▲紙物 (單位厘) · ▲石炭 (單位錢) · ▲石油 · ▲鐵物 (單位錢) · ▲砂糖 · ▲海産物 · ▲染料 · ▲木材 · ▲布木絹布 · ▲牛皮

[illegible]

海外經濟 (四日)

◆朝鮮銀行券◆ · ◆日本銀行券◆ · 銀行券 · ◆阪神綿油◆ · ◆阪神鷄油粕・麥粉◆ · ◆日本麥粉市勢◆ · ◆東京金利◆ · ◆大阪金利◆ · 金利・手形交換 · ◆京城手形交換高◆ · ◆京城市中金銀價◆ · 金銀價 · ◆東京金價◆ · ◆金買入價◆ · 對外爲替

[illegible]

正米

◆京城正米◆ · ◆大阪正米標準價◆ · ◆仁川正米◆ · 正租

[illegible]

雜穀

◆京城雜穀◆ · ◆仁川雜穀◆

[illegible]

綿絲布

◆京城綿絲布市勢◆ · 滿洲商況 · ◆大連特産市況◆

[illegible]

砂糖 · 生絲 · 人絹 · 棉花 · 綿絲

◆大阪砂糖◆ · ◆東京砂糖◆ · ◆橫濱生絲◆ · ◆各地人絹◆ · ◆大阪棉花◆ · ◆大阪綿絲◆

[illegible]